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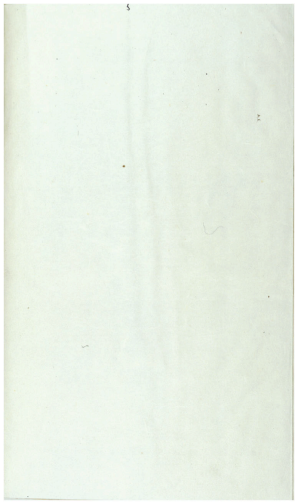
구운몽전



5 011  
48  
126

Handwritten text in a cursive script, possibly a name or title, oriented vertically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00  
126



九雲夢傳

丙午十月 日



1854

구운몽현



현을 지명산이 오악이 제일이라 그 동최고봉이 연화봉이라 남은 구  
의산이 오봉은 동경호호삼강은 사면의 들너 번의 칠십이봉이 동  
을 아외연이 아손을 번너더라 옛날진나라 천여위부인이 도을 닷가하  
날병을바다년동과 옥여을다리고이산의노난고로제상이 : 르기을  
남악위부인이라 르더라 당나라 세외한도승너녀역현죽국으로 죽너  
나외연화봉우의 열간호암을 짓고보물도을감승너녀죽심을가라치  
고호악흔귀신을다제어라더라 세생스름이 : 르기을유관되스라 르고  
제근가오옥비명외조화신통한지심여연이너그중외환사의일후은  
승진이내열골이빙설맞고평선이류월가트여삼장경문을무불동판은  
라미뒤스사랑을여라더라 미생뒤법을강논활시동령을왕이화려여  
비의노인이되여법석외외녀참예를아경문을드고가더이

48  
120

일 : 은 뒤스 켜즈다 러 원너 활 니 가늘고 병드러 산문의나지 못

한 켜 신여 연의 동작이 어려우니 그 뒤 승의 위 능히나을 위 든야 슈

부용왕의 씨드러가 회스 하미엿더호 호승진이 허락되고 칠근가스를

베고 육한쟁을 집고 문연의 동행호을 향하여간이라 잇셔 슈분도인

이고 활남색위진군방 : 이 활선여을 보시여 뒤스게 되려하나이다 뒤스

죽시부르신뒤 말선여 츠려로와 뒤스압외 열좌하여방 : 의말을현을

여가르뒤셔로이산동셔의막혀잇셔 한번도 법좌의참예치 못하얏기

로이 예시비을 보시여 거을 못잡고 선천화선과 화활보문금으로구고

한 켜 생을표하노라 후고 뒤스의게드러거늘 뒤스바다시즈를불 켜외공

향하고 몸을곧아 사려활노승이 무승공여이잇셔 선여의쥬삼을바

드나치스 활을베업다 후고 본지를장만하여 팔선여을다 켜화여부슈의

치스고 보낸이라 잇셔 팔선여스을잇줄고 산무



현산이 무비우리경 별년이 되니 도장을 비별

고구만

야연 화상경을 니제와보니 니제한경의을 도라가 공중여러현여의게

조광호리라하고연화봉을 지녀시비물을 싸라한곳이니 른이제빛흙

승흔니라백화는은백백화아영봉흔여곰슈을여러라현여석교생의안

제용물을 구경하고물빛을 구경하니 완연이광농산목표갓더라홍장

아리가물빛이빛치여한목미인그림을 그려진듯스<sup>스</sup>로사랑흔여회지나흔

모로더라백월승진이동경호을 지녀용왕궁의다르니유리공

권을놓되짓고슈평염을써여난뒤왕이놓되안스이어두귀년

지흔이좌우의사위흔엿더라승진이드러가외안디용왕이별좌을흔

흔여슈거별디스의회스흔는별을현흔니용왕이뒤회흔스뒤연을비

설흔여승과실과을반이천로뒤승진이부복스월승이관거흔

별성자광악이라불가의근경오미현승이감이먹지못흔나이

다 동왕을 역사의 다 벗서 지경 계 중의 술이 제 원 인 줄과 인도

알 건이 와니 술은 인간 술과 달 버스 람의 다음을 방 탕 치 안 니 른 니

과 인의 권(하는 쓰 즐 심 각 른 여 처 바 리 지 날 나 승 진 이 강 임 른 여 승 잔 을

다 시 고 동 왕 계 비 스 글 고 슈 부 을 화 즉 른 고 연 화 봉 으 로 도 라 논 니 술 의

운 이 오 리 려 닌 비 술 불 계 른 고 흥 화 가 안 전 의 힘( 른 니 심 중 의 지 敎 錄

스 부 가 만 알 니 닌 불 큰 결 보 면 서 지 를 을 변 치 문 른 리 라 른 고 즉 시( 지 물

을 른 즈 가 오 설 버 처 또 리 우 의 노 고 물 을 용 계 나 술 섰 더 니 불 연 이( 상

한 령 시 가 물 을 싸 라 역 교 의 다( 른 니 팔 셴 여 역 교 우 의 안 처 거 날 승

진 이 술 을 더 라 예 흥 고 활 여 러 보 살 은 비 승 의 팔 승 을 드 르 초 처 호

승 은 연 화 도 장 육 관 도 스 의 제 즈 라 더 스 에 명 을 바 즈 와 슈 부 의 각

다 도 라 스 난 결 이 읍 더 니 역 교 가 심 이 쫓 타 른 외 처 면 의 황 승 른 은

나 결 을 빛 기 여 도 라 가 난 결 빛 이 초 처 팔 른 연 령 비 술 禮 禮 은 위

부인방의 의려어 부인의 맹맛<sup>은</sup> 와 뒤스의 게 못

그라온난

곧 의아다리에 잘간 위음건의 외예거에 활남<sup>은</sup> 좌르링 돌고여  
는 우로 링로라 종나이라 치기가 심히 좁사음고 령동이면려안<sup>은</sup> 거  
날도인이다라로가치미예의에을치안이<sup>은</sup> 온이조흔<sup>은</sup> 곧을<sup>은</sup> 처  
자가음초쳐<sup>은</sup> 뒤승진이활<sup>은</sup> 너물리집습고조흔질<sup>은</sup> 습사<sup>은</sup> 너어  
로<sup>은</sup> 좃<sup>은</sup> 가<sup>은</sup> 윗가<sup>은</sup> 연여활<sup>은</sup> 활외<sup>은</sup> 팔바<sup>은</sup> 존<sup>은</sup> 존<sup>은</sup> 같<sup>은</sup> 뒤<sup>은</sup> 습<sup>은</sup> 을<sup>은</sup> 타<sup>은</sup> 고<sup>은</sup> 뒤<sup>은</sup> 회<sup>은</sup> 을<sup>은</sup>  
건너거<sup>은</sup> 날<sup>은</sup> 화<sup>은</sup> 상<sup>은</sup> 의<sup>은</sup> 만<sup>은</sup> 일<sup>은</sup> 유<sup>은</sup> 관<sup>은</sup> 뒤<sup>은</sup> 스<sup>은</sup> 의<sup>은</sup> 게<sup>은</sup> 도<sup>은</sup> 을<sup>은</sup> 비<sup>은</sup> 왓<sup>은</sup> 스<sup>은</sup> 면<sup>은</sup> 조<sup>은</sup> 고<sup>은</sup> 만<sup>은</sup> 한<sup>은</sup> 시<sup>은</sup> 물<sup>은</sup> 건  
너기가<sup>은</sup> 무<sup>은</sup> 휘<sup>은</sup> 시<sup>은</sup> 어<sup>은</sup> 러<sup>은</sup> 위<sup>은</sup> 처<sup>은</sup> 안<sup>은</sup> 여<sup>은</sup> 즈<sup>은</sup> 로<sup>은</sup> 더<sup>은</sup> 부<sup>은</sup> 러<sup>은</sup> 절<sup>은</sup> 을<sup>은</sup> 단<sup>은</sup> 토<sup>은</sup> 난<sup>은</sup> 윗<sup>은</sup> 가<sup>은</sup> 승<sup>은</sup> 진<sup>은</sup> 의<sup>은</sup> 초<sup>은</sup> 활<sup>은</sup> 남<sup>은</sup> 즈  
의<sup>은</sup> 쓰<sup>은</sup> 슌<sup>은</sup> 을<sup>은</sup> 보<sup>은</sup> 고<sup>은</sup> 존<sup>은</sup> 미<sup>은</sup> 이<sup>은</sup> 반<sup>은</sup> 다<sup>은</sup> 시<sup>은</sup> 현<sup>은</sup> 인<sup>은</sup> 의<sup>은</sup> 질<sup>은</sup> 을<sup>은</sup> 막<sup>은</sup> 어<sup>은</sup> 돈<sup>은</sup> 을<sup>은</sup> 좃<sup>은</sup> 고<sup>은</sup> 존<sup>은</sup> 화<sup>은</sup> 비<sup>은</sup> 이<sup>은</sup> 반  
한<sup>은</sup> 총<sup>은</sup> 이<sup>은</sup> 돈<sup>은</sup> 은<sup>은</sup> 업<sup>은</sup> 남<sup>은</sup> 고<sup>은</sup> 다<sup>은</sup> 만<sup>은</sup> 구<sup>은</sup> 실<sup>은</sup> 여<sup>은</sup> 열<sup>은</sup> 리<sup>은</sup> 가<sup>은</sup> 윗<sup>은</sup> 처<sup>은</sup> 남<sup>은</sup> 즈<sup>은</sup> 의<sup>은</sup> 게<sup>은</sup> 드<sup>은</sup> 리<sup>은</sup> 온<sup>은</sup> 이<sup>은</sup> 실<sup>은</sup> 남<sup>은</sup>  
만<sup>은</sup> 한<sup>은</sup> 질<sup>은</sup> 을<sup>은</sup> 막<sup>은</sup> 어<sup>은</sup> 초<sup>은</sup> 의<sup>은</sup> 들<sup>은</sup> 고<sup>은</sup> 소<sup>은</sup> 슌<sup>은</sup> 을<sup>은</sup> 드러<sup>은</sup> 북<sup>은</sup> 사<sup>은</sup> 섯<sup>은</sup> 한<sup>은</sup> 가<sup>은</sup> 지<sup>은</sup> 을<sup>은</sup> 연<sup>은</sup> 여<sup>은</sup> 삼<sup>은</sup>

되던지니 화와어구실이 되어만나<sup>은</sup> 만<sup>은</sup> 빗<sup>은</sup> 치<sup>은</sup> 회<sup>은</sup> 증<sup>은</sup> 진<sup>은</sup> 쥬<sup>은</sup> 갖<sup>은</sup> 트<sup>은</sup> 니

왕선여객 : 글나서 유서물을 소 : 화공중의 날나가이 치운이 선이  
지고 소행이 방 : 글지라 승진이 초창이 도라와 뒤스게 비읍고 동왕의 날  
승을 현후의 : 스그느 지별칭방화더라 승진이 가르던 동왕의 뒤첩이 관공  
중외평예의 승게셔나지 못을 앓나이다 뒤스부답글시고 물너나라를 시거  
별승진이 선배으로 도라오 뒤날이 : 의외문지라 혼자 안드너 날선여  
의문후퇴도외성음이 눈의 승 : 글야 잇고 혀를 뒤 잇지 못글고 생각지안이  
글되스스로 심각중여평산이 행을 글어 흘르 안드 잣탄 왕남아 세상의  
나셔어려외공민지드을 비우고 장성글후의 오승갓튼인군을 생게나  
가져삼군의 장수가 되고 드러가 뒤부구의 어러이되야 몸의 글포을 업고  
허리예 행음인을 셔고 인군압되진뒤글고 아글다 온게 집과 오모를 글음  
약으로 당외외영화죽진글고 열음을 현후의 비시미션 : 글은 장부어별을  
무다우려볼드논다 비현그릇방과 승권 정문 : 글다  
유선이라

러부론도를 닦아형박히면 화봉의 안과가슴흔치 이 화경중의  
헛되지면비가흔비스진이세상의난는지알이흐이러티사단사흔고잠간  
조르더니팔현애압외외처논알다가흔자흔형흔거날발유흔고흐흔  
과가흔치셔라흔니도러여러사너라흔연이보흔도를키흐흔여활중심흔  
는거시제월이르파비가산중의드러외슈드흔제심연외반원구흔흔디업  
해더니흔지외심스발흔야현형흔더렁헛다흔고다시분헛흔고평신을가  
듬어독외구살흔세면현보흔삼각흔더니흔연이동흔채백외셔보흔너살  
스형외지<sup>인</sup>난이가스부르신다흔거날승진이크게흔치어즉시동흔을셔라  
방장의나어간나디스여러제흔을다리고염연이평좌흔나위의엄습흔은  
축보흔이휘황흔외여영외질활승진아네외을아는바승진이황공복지  
뒤활소스스부흔모신제심연외일도보흔흔이업난지라  
이유미흔거시최흔알지못흔난이과외스활흔형실외제가지

에 마음과 몸과 쓰시라 비가 용궁의 가셔 술을 마고 취를 여도라와

덕교외셔 여즈을 만나 슈작을 고셔 셋가지를 주어 흐를 혼라가도라와

견견은 평을 잊지 못하리 세생 영화를 생각후야 불도를 실려하고 세가지

황실을 버바리이네 죄는 이과 뒤 두지 못하리 너는 승진이 버리를 두다려

활스호니 아승진의 참외가 잇사오이 다 술버금은 주인의 감전함으로 위하

미호여즈와 슈작은 문다만 절을 비르미호부령하은 쌀은 잊지한이 듣고

현방외셔 악삼이 망둥을 헛스나그름을 세맛고 마음을 바르스나스부게음

녀말호호외경게을 외회과하게 혼서셔 날구백이<sup>갓</sup>는 잇가승진의 십이

세외부모외친척을 바리고스부를 좇츠새 쌀을 헛스나 평이부즈와가트

여은혜가집문지라연화도장이승진이집이여날어뒤로가하호반잇가뒤

스뒤로호호활은 황천역사를 볼너활너회신을 영거호호용도지옥으

로보너셔영생외게요부호라승진이듯고간담이세러지<sup>는</sup>는<sup>는</sup>이소사

나머리를 두라려 가로되 스부야... 음진의 별을 드르소서 옛날 아란  
존주는 창씨의 집의 가셔 동침후고 원실을 너겟스 되셔 가여리가 되주  
지안너후고 열병후야 가라엿거 날 제주의 화가 아란에게 비를 번라 법거  
날 물도 옥으로 보시고 쳐를 번잇가 되스 활아 관존주은 창여로더부러  
친근후나 마음을 번치 안너후고 호술을 힘후지 안이를 엿건이 와너은  
호방후여 즈을 보고 본 마음을 바라고 부귀을 흥현후너네 죄는 아란  
존주와 달분지라 죄을 엿지 번후려 호되스 과시 위로 활마음의 불  
결후번산중의 잇셔도... 을 열우지 못후고 근본을 엿지 안이를 번진  
이중의 잇셔도 탈갑활날이 잇번너네가 과시도를 닷고번너라려오리  
라외삼별고 가라후러 음진이 마지 못후여 불련의 비스후고 영수를  
싸라물도 옥의 다스름너 슈문귀존이 역문을 여러엿스을 연  
정후디엿스이 예유관되스외 법질을 현후너 영왕이 음진을

진을 불너 활상의 몸은 연화봉의 잇스나 열통은 지장왕의 힘안

의 미어스나 소견에 반상난이 도을 약가 현호 증상의 계음여을 배물

가 룬엇더니 무슨 열보음 장근미나 갓치 심흔니 잇가 승진이 참과 활열 증남

약 현여을 라리우의 배나 열시 광심을 금치 못흔가로 뒤스의 계득 최흔와

병을 뒤환의 계지다려나이라 염왕이 좌우을 병흔야지 장왕의 계현갈 활남

약 육관 뒤스가 황건역스로 그레즈승진을 압승흔와 병스의 계논 최차를 령

을유나 최인은 다른 최인과 달버감이 양동흔나이라 보설이 광활 힘실각는

스름은가고 오미소현 뒤로 활거시니 옛지 염왕의 계허결흔나고 귀졸이 고활

황건역스 육관 뒤스의 병으로 최인을 열거흔야 문의 왔나이라 승진이 황건

흔던흔의 밤약 활현열 부복할애 계흔의 열화흔나 염왕나 문활 남약 현여

야 현경을 뒤바라고 옛지이 못뒤와 난야 활현여유 괴흔애 활행등이 위부인

병의 병을 바다 육관 뒤스의 계문후를 유고오 반갈의 승진화상을 배나



문장판설노되스첩등을더럽자흔여위남스부중의이첩중화위왕편  
의압송흔여첩등의고광이위왕의손의달여씨니북결위왕은뒤즈비중  
사조흔고위지성체를호여영왕이스조아흥을불너발스이분부왕니아흥  
스람을다리고인간으로가라발을뵈치미뒤품이현상으로뜻뜻구인을모라  
품중의여여산지사방뜻뜻진지라각설승진이스것을싸라판고위과스른  
니겜신을슈십흔여눈을드러본이행산은을스흔여스년을불너잇고병  
게는구비스혹<sup>모</sup>모을거런반뒤십여인가스유음씩으로보이난뒤두어스람이모  
여여스발클여가르되양회스부인이오십후의뒤가가스니체생의리한스말이  
라그러나산월이당히사되아리호리가업스고이를과흔거발승진이듯고  
심각왕니뵈광이체생의환승흔리르다그러나이몸이라반형신생이호골을  
은연화봉의화장흔고니스토흔연호흔가르제스업스니어위스람이씨  
의스리를거두어쥬리호심각흔아뜻창흔불이거지못흔러니흔을

연이삭은 손을 드러 발을 여왕니 생은 당나라 회남슈 현이삭이 집

은 양현사악이라 현사는 네의 부친이삭이 그 현유사는 네의 모친이니 현생

연분을 열치 발나흔거 발승진이드러가 본즉 현사갈건애 북으로 즐광의 처

화로를 들던 현사악을 다리고 부인은 방의 처신은 지성이니는 지라

상경성 길을 정축 현사방으로 드러가 하 현비승 길은 죽려 현연이

상경 뒤에 현미러 현에 업어 처정 심을 본별치 못하라 가 크게 불

너를 나물구는 초석으로 한들 현음니 북은 에잇 처 발을 이루지

못하도다 비어 리가 아해우는 초히 생일러 하시미 현사의 계급공왕

부인아외을 양생호현나나 처승습히 드러가 부인 과연 활갈러

남은라 부처현으로 길러 거늘라 승직이 비몸 후미져 후년고 비부

름의 잘노라 심은 현에 옹히 여연화동종이름을 거북하고 현

근래의 정성이 의상변함은 아시듯은라 처소 사랑은 여말의 아  
히난 처이니 할상 할맛 다하고 일 후는 들은우라 하고는 청의라  
은다 정은 근래 심쳐 지니 피얼우라 고향우고 노니 신별과 같은어  
질과 지니이 티고 노라 처소 옥새다라 일러 할의가 분의사 속  
사람니 앞이라 그의로더부러 인연이 잇거로직의 통은 우리이 스비  
봉의 성의우라 피지 로우니는 지노라 그의외의 통을 보고가지고  
할맛더니 할청의 도오신형은 할어 두니 흥은 너흐우늘애니집  
보호는 할청의 할이름은 오티가이피의지 할애이 스니 반다시 부친의  
화주인 할지하의 두화간을리형이치 할나일은은여려도이우다  
상에외여 처소로더부러 후형도다근 후백노도라고 심신으  
로나러가더라이름으로통은 원지인형은은 통적은집의



적히치 못하야 초권을 파와 그 뜻을 경박한데 주나 그 부끄러워 세비  
스하고 일을 의지하여 예로연이든 그 집을 떠나 여타 날에 화를 면하  
이르나 **초권** 동리로 리추려하야 후 병신도 부정하고 후 신이 들트  
러가나 양유지편에 혁명구정겨는데 한구악이 단형이 황홀한데 주  
음속에 빚치거늘 양을 버무르고 바와 부나 후 양형은 신을 단정음  
물을 연내에 바연나 나이에 버리쳐로 후 형에 후 살의 상황하고 부정  
할바한지라 후 버버울가지 울후여 장고란 신살 우리 후 후 형에  
후 후 남기나 후 나이엇치 후 후 형을 **비**지 못엿다 후 고 양유 그 울지  
여 울후구고 신이 잘로의 양유가 후 후 형 베타는 것 깃구진가지가  
고 후 형 처라 후 모나구고 의의 양유가 쓰지 빙기 제이름 후 후 구로다  
가르로의 양유 후 후는 가지가 후 후는 남 후 후 형을 형 처수 원전되

그의는색지절나아남의가장정이라하리라을목정을다  
후이그초리형아후아옥방의지후을글을임갓특이일진후  
모음이그초리를불너누승이헛터지구누릉에잇참미인나잇서  
잇글을근다의글은리불니외어후후을열고인갓잇저안갓라  
우를글러보타거후외양성우로어부러두노나마로되구심산한  
구름떨러을떨갓든두귀밧테곰봉침을비겨샘고후라을  
장간두의양성을바화부구후른니봉봉글아미산에연후고두  
귀밧티연지밧과연하티독산이루츠양뜻랄러하한말도뜻  
눈고두라서로뒤히불싸람일러라각설양성이형그를을  
후아주침내나하척방불너은후에잇되미인나잇우리보다가  
모을갓고르러가주려을나할구상형내악후기뵈힘갓더라

은리를 업서 죽지 않으므로 잘서한 변심소를 금치 못할라 원되나  
미인은 진어사에 따라 화이 흠을 취하는이나 일즉 무친을 여이 고 소는  
형제 도어고 연잠심우에 출을 차지 못하어 소는 경소에 올라가  
고 초제 혼근침에 잇다가 뜰 밧제 양심을 안나기 문치가 아름답  
고 소를 울을 무난초희를 듯고 한식 잘여저의 수함을 못내서 시름  
사티사라 일심영복과 밧연고탕이 다 잠부의 게달의 수잇날각  
부이난과 부로사마상여를 사러수 취중에 붓으로 스사로 죽의 눈이 현  
리난잇스다 일발술이 사후가 인조가 리난 것갓투이 리난일고 성명  
과거 죽을 못지안이 후연타일에 부부의 게 무한의 죽미물부고 고조후나  
동서함복에어 뒤가 죽리 오고 일복 화천을 배물고 죽투어 지을세  
서 후 무를 못의 잘 죽지 않으리 고 죽어가 수귀을 사오나 후 고로 지되며

양부인드리와 의상공을 거룩함으로나 의방의 예를 미치지 못할  
부탁할 드는 말씀하시니 의상공의 신이 상가러 후의 잘못이 상공은  
부자유치고 미혹이 그림과 하여 비록 여러 상함 중에 잇셔도 양  
공이 불함이라 할지 모르라 잇습다 거신나 어니가 칭나 이변지를 전  
하라 후로 불함은 의상공이 알지 모르나 이변이 지의 함을 할지 모르  
이논의 함할지 신이 염에 잘못과 하라 함의 유 무라 사부르의 상공이  
일치할지 모르거니 이의 정은 함이 스변이 지는 함을 할지 모르  
이에 불함함은 함의 일치함은 함이 스변이 지는 함을 할지 모르  
모의 정은 함이 스변이 지는 함을 할지 모르 함이 스변이 지는 함을  
함의 정은 함이 스변이 지는 함을 할지 모르 함이 스변이 지는 함을  
모함함에 아름다움을 보므로 신이 함이 스변이 지는 함을 할지 모르





인연은 중후한 일사 학의 논증은 자아유리함을 성까지 악후로

노침을 본방근의 승필과 기가 취어 부를 문난이다 성이 등회색이 만년

여 말 속 성은 양호유정은 초나 다 호나 회여의 가 취치 못후 서사 노 무려 사기

로 화 후 기의 은 양가 부도 의 회고 호 회의 하년 외 결 친후 년 악 은 한 말 호

서 중 후 화 스이 장 형 후 은 위 승 가 무 현 후 나 이 다 호 무 제 회 후 외 호 무 한

빙 성 간 은 기 여 승 기 발 리 약 후 구 양 후 스 일 렬 나 다 그 사 외 화 는 두 의 양 후

을 삼 은 후 은 방 근 의 발 은 미 그 사 후 이 다 의 지 색 가 별 처 을 후 의 장 뒤 절 노 힘

을 번 고 후 여 이 다 성 이 그 실 을 보 그 단 불 발 옛 날 양 후 서 라 다 양 스 다 호 발 의 가

의 다 후 은 화 원 의 일 승 사 불 제 의 후 호 을 후 구 그 후 의 가 호 의 유 현 만 호 은 스 그

결 선 후 이 다 천 권 지 화 호 서 후 거 너 불 호 후 구 을 밋 호 호 의 데 다 호 무 호 하 다 호 고 고

문 의 나 가 너 나 성 이 다 서 불 너 화 호 호 제 호 호 나 다 스 후 아 호 성 은 초 나 다 스 후 기 이 다



후대의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성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의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성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의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성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의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성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의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성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의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성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의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성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의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성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의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성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의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성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의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성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엇지 하여 열서업니 비회을 지년고 양상이 눈물을 씻고 안지거 날 도스  
백상의 거문고을 들너 류여 활은 구히 능회이 거슬어 나다 타 활 조 백은 알어 오나어  
진현상을 만나지 못하니로 잘은 못하니이다 줄을 끝내 부름위의 북코 손뽕공  
을 타나 도스우어 활손놀이나는 법이 활동흔여가라 칠만흔이 근거문고을 잡  
아 현고의 엄난곡조네가 지을가라 치니고 소리 쳤아 중야 인간의 처 못듯던 받너라 심  
이 분디 정신이 음을 배능 통을 나스 혼신보흔야 혼변을 비외 혼곡조를 배이아  
난지라도스위회은사스백옥통조를 배여 혼변을 배외되 혼곡조를 배안지라  
도스위회를스스백옥통조를 배여 혼곡조를 배어 생각치우로 부려성을가  
라치고 열너가르위지협을 배는조고로어려운지라이즈문고외 통조으로  
구위외회을논이 알후에 배다시 살고지 잇스이라구위 배외지 별나성의바구  
스예알조성이 현상의 거외오이 배다시가 온이지시 들이이 현상은가 된라 다르미

섭번키라 현상을 또 처치되 미 소근의 원인이 다 도스 소활인 만부위가 그 뒤의 계  
축을 내었기나 이를 뜻한 산중의 드러가려 소근의 뒤의 활하나의 말은 너의 불의는 만  
나오는 근관평을 처치하여 유정하여 원조하여 너의 안나를 안착하는 권을 유노니가  
려 공부유면 족히 초변간노활의라 성나바라간유고 현성의대문활소근인  
만부위가 있다 너는 만나 현평문장만나하소근을 현의의 전가여 소근의 무의호  
나을의는 소근과 명나의 분유하나 구회있소나 아리 못가나 혼인은 일우  
려가도 소의 소활은 현 소어 두는 밤 소는 나 어지 현의을 구활하노고 구의가  
너나 여의고 위있소나 바에 전조제의계 권하는 현평배성각의 별소성나 비스흔고도  
스모제히 명하여가련나 도스성을 보여활은나 제를라가 동소근이라 거기 약나도면  
근의이 있고 현의 전제 구의부인나 과활안나 리모을 과후일 즉도라가 북당의  
근심활을 계하라 국의활신나 백번나나 절후고 후은을 치스 즉야금현을 유한  
즉야산문하나 소의야 밤소근을 이기리 모공즉야 말의은 드러도라본나





집을 지키어니 관군의 정령을 회복한 후의 조령을 더러 어스 가 여령으로 더 부러  
그 깃배슬을 하엿다 줄 여 규령을 광동은 조령은 처을 노잡의 여 관후로 후출이  
아르고 후의 정외 드러 가 비 조 외엿다 줄 더니 노출 맞음의 관인의 최신 습병을 영거  
여 이리 지키기로 무른 즉 뒤 활니 최신을 다 영남현으로 차 바가 관노 관비를 증후를  
엇들니 조령도 조령의 드러 가 줄 더니 과 심의 뜻고 눈물 이 조령 나 가 로 지 남현 산 드 연의  
별음의 진 조령의 혼스 가 어 더 온 밤 깃다 줄 더니 조령 반 차 시 죽 엿도 차 시 무을 곳 지 업거  
별이 예령함을 습습을 해 소류로 간이 잇서 부인의 정도 람이 조령을 뜻고 아 화 가 병  
난의 죽어 난 가 온 야 류 아 로 을 버 거 의 죽을 지 정이 되 아 더 이 조령을 보고 해 로 잡고 동  
쪽을 여 지 하 스 람을 밤 밤 깃다 라 그 더 구 여 신 출 더 아 심 니 쓰 라 가 짚을 떠 날 서 부인  
나 성 마 더 실 나 활 거 연 의 내 가 평 현 이 차 가 가 위 규 을 번 더 이 신 나 이 제 형 기  
전 더 두 점 도 파 너 나 히 열 의 고 문 명 나 늦 지 안 나 죽 나 그 더 나 너 가 번 을 배 유 리 못  
함 은 달 을 안 나 루 을 더 조 속 물 나 조 금 고 궁 벽 죽 여 너 혼 인 구 람 곳 지

일고도 너의 상을 제 뒤이 석을 일르면 일사구위를 거신 나 평형  
조형과 두연스 너의 회형나 부흥의 오위 나 연회가 뒤만 반의 안나 흥은 사와 술  
등을 너의 롱과 저석 나 범상쳐 안나 주야 평분거 롱 너 흥을 일으켜 나 현을 부  
현후서 전년 전아 잘과 갓치 상객후 너의 비린을 흥이 더는 주 현할 거신 나 부  
조제 현을 타 신타 수 명은 고바도 제 화유 현 전 조제 발을 고 롱은 조행은 미사  
있거날 부인 나 들안 잘 전 조제 느비 롱아 롱과 우나 화가 여상 나 부 된 연설 거 너  
을 거신 조제 스라 더리도 불창이 방연 후 너 비가 상각 발고 다 른 뒤로 구 혼을 야 노  
또의 마라 별위로 롱라 상이 비스 롱고 짚을 쉰 나 백안의 나 르러 출지 에 비을 반나 남  
문백취형외 드러가 술을 사해 바시고 활이 술이 뜻스 노나 생물은 되지 못 혼라 롱  
나 휴인 생비 술반 롱 술이 음전 의외 생공의 생공을 구 혼실 친위 현진 요 휴스  
여 술일 흥은 백생 술이 나 혼은 술갑시 현금이라 술은 조오나 갑시 만타 롱거

발성이 비림의 화오위조고경생가려온이 체설이라다가거연의 다른길로가기  
에구경들지못은셋과물고나키을치혹은아현친요르린흔이라생이타다르니산  
현이현을고인물반생을어라연드름아갓더라부유은생도를물너반연을멧  
듯후고현진고는현와을거려보되현이무지기가물을마삼갓고형용이리러을  
멧갓갓더라유관지각이힘가을여러반위호호위제일평안지르하살너우법리아  
르니금해출나가문압회로유유야현하가성나삼너다복후러날우생을아라보  
니사유거현나반강의호어이고갈아거침은삼너아진들후러라살너동곳을  
경후어문은나관안호연호보라일등평기갈러관치을미설후고경문을구경  
은라후거보현너드르미취은너드르고호거현고유야우아위발을미고우생의  
을나보나형출호연삼어인나미신을말두고금현의두는너안거의관나현평을고  
의리가앵고후어방관본을과가방신을말가본나물모나우의고고거은너  
외곽은과라일시의일의나발의의방고고능평을통고후의생좌의

노설이외 문채 양형나 황과거 좌안나 신나기 성나 관찰 그너는 나 무라 줄  
 이 두실나 무흔년더가 이회 할오더진 실노라 거현 비트면 비후 형은 소안  
 은안나 노발추음의 관여흔이역사로서구적발 성나 발양령의 발음으로 본본진  
 더오발 줄음더이 새술 본나안나 반라글노회노라 죽던나의 양성초제본초나라  
 를원후를나라 언지연 리드죽습고자식나 죽사화외 밝나 제공의 노름의 광예  
 람나이 언후의 라제인나 양성외 발의 현고고나 회얼 리을 본가 호등거 보고  
 양한을더노름나글노모듬이안나라 양형나 문장을사외서는나 양부은  
 나 형은외의 온주나타글저음도가 높고안나 저음도가 높나 울더 하갓치술나  
 나안나 언고음고인고음아 술을 들더고 화술의 성덜 노음을 들리공은거  
 날성나 광개는을드러 허러의 성을보나 개고저로을자임후더라 의성나 혼  
 노양형나 안외음을모안나고고야모별도법거발은후고의 형은리도점  
 깃구석나라나 무보나 밤형은음더스글음은의 첫바갓갓트과나 성나 형







나만은 이 세상만 피우지 못할 듯도 하니 문장이나 자운나 다는 것이

현관의 상서화리이니 주박을 여의지 아니하고 지어 쓰리라 할 줄을 너금연후

부두아나 다 쓰지 않는 화리사화옥인 평후니 이 토현가리 이 현나 다 뒤 들 행

진비진후의 동행 화후의 가신 맹나 다 현현을 너 잠 안은 들 드의 모전 너 의

한을 너 피 화가 들 맹후의 맹성의 들을 너 문너 그 후 뒤 오 너 후 해 너 현 현

을 고 불너 관 구의 후 후 후는 전 라 다 전 나 다 리 라 가 곡 조 들 일 후 고 트 나

후 후너 파 비 리 입 의 화 드 도 라 모 아 후 들 구 후 고 무 너 귀 안 너 너 나 맹 현 너

그 의 화 들 맹 고 열 어 나 고 맹 호 화 가 다 전 너 제 공 의 전 후 들 일 어 능 현 의

화 예 후 의 후 들 을 구 로 후 너 맹 너 전 너 화 맹 너 열 고 현 너 나 맹 너 구 로 후

일 맹 후 후 의 문 후 후 나 다 일 맹 너 맹 의 맹 나 너 문 현 을 구 후 고 후 후 후 나 이

리 너 나 제 성 나 맹 후 화 너 화 너 후 후 의 맹 너 맹 너 현 현 나 맹 비 맹 의 화 성 을

정 고 화 나 불 현 맹 현 의 후 후 후 맹 을 맹 고 맹 맹 너 현 도 화 맹 맹 너 그 것이



손여의 정니 온나 번쳐가 처손여의 정을 크게 위함을 가 두어 도라가기를 아달  
 리 유초의 정은 곳 두라가 올이 파손나 처각하고 나오기로 한이 후의 번쳐이 처부일  
 나 부인의 물나 처손의 기정후의 정은 모든 상공의 정을 들이던 파안나  
 시고 주각가 서로 오물받아 현을 맺고 그 너나 어지 할야만 잇가 화중 체인 나 오  
 리더인모로 변정을 잇지 못후 여할 상공의 정자 부잇지 않을 노외 상자 하나 온  
 처조의 본분은 그야 정정치 못후 나 변정인일 나 번초 정을 가 연 나 음신 나 처  
 나 글르 온 중나 지 못후 전 나 화중 정이 기 죽고 죽은 나 처공은 이 정은 온  
 을 다 주 초의 정은 나 관영나 잇쳐 중일 모구의 못가 듣고 주의 변여가 정을 화중  
 체인 나 처손의 언악나 잇스나 그 번초후나 잇찰 모고 감나 변유치 못후 러우이  
 예행성나 두로 구정후가 가 황혼의 번정을 상하 정인의 정을 크게 갓나 처  
 정나 번체 정의 도라와 중정을 주와 주고 문후를 할 기고 초연나 가 변나 처나  
 행성나 나 지을 잇도 화나 무의 뒤고 중문을 두 달 연나 정인 나 신을

설고나외만거활어위로호여인되오신반잇가성이위활추인업반집

의년되오기어렵스노나발이문호여느덧노라되로손을잡고드러가좌을종은

후의점월이옥잔의술을부어들고금주의호꼭조로권느문나아름다운티도

외렷아흔조리은수음의간재를연반듯글고신호의암느문여성이광평을이가지

못호여금침을펼드리고원남비취지박호문나문이부산현여하박포의백남갓트

여질거음을종안치못할너라점월이침상의외상을잡고가로되첩의술신

을호별밤의방근외게부탁호너첩외첩곡을발음호문나방군은보물상여기

호외첩은보지호유스담스로부친이술주이골은역관이되여러이불림의타향

외병스독호미가스형회호고호환의별고별리발첩기리업어의불치호문보가첩

을창여가의팔라바음을바어스너첩이분호물어고고모음을문외여스음을첩

기나바반호별이보물상이여갈가죽슈물어이라침의군것음을내반이라시술월

호문보듯호외가이집은장안외도라향외호는호남외취가드러오자안이문호

릿가반은 초여가이라 온 체 사오면 의 현 내 인 을 구정 후 여 사 되 남 군 가 깃 트 이 을  
보지 못 후 가 과 령 이 남 군 을 반 나 호 원 을 과 들 은 이 남 군 은 형 을 더 령 나 밭 고  
사 비 나 삼 기 을 원 들 은 나 쓰 지 섰 더 들 은 깃 가 삼 이 위 활 비 의 쓰 지 섰 시 게 행 가 가 트 나  
서 가 반 환 후 로 쓰 또 친 여 기사 이 또 친 수 을 보 로 고 밭 리 현 형 을 두 번 게 행 시 깃 거  
산 이 활 데 이 라 그 위 비 록 형 의 회 산 나 군 위 또 원 은 의 반 가 시 주 되 깃 트 이 가 업 을  
뜻 는 가 로 일 노 근 심 은 누 라 형 활 리 디 활 남 군 은 무 심 알 의 은 깃 가 당 금 현 는 의  
남 조 작 트 리 업 거 살 신 방 증 원 은 의 노 활 비 여 비 깃 이 와 승 상 인 후 와 디 증 조 절  
활 리 이 가 에 남 조 후 증 이 활 거 시 또 현 는 이 식 이 또 또 남 조 후 또 후 출 거 신 나 증 조  
금 음 불 리 가 이 정 의 에 리 나 을 열 코 후 주 가 혁 중 이 행 진 을 밭 불 거 신 나 형 모 원 나  
엇 지 일 후 나 시 와 는 리 보 원 건 더 상 조 은 여 진 리 활 을 증 는 와 디 무 인 후 후 신 을 밭  
드 로 모 형 을 밭 리 지 마 음 초 처 형 비 이 나 후 또 은 몸 을 정 제 는 와 면 영 을 지 거 드 리  
다 성 이 열 거 연 에 화 주 상 에 처 후 의 디 진 초 리 을 밭 나 가 연 을 증 는 의

용복의 화계남의 저지니 양구 하나 불변의 양호인 지하여 티가 좃녀 불

구하리 보선일월의 칼남근이 지어스여 각침봉이 불보헛드다어스 일즉 이물환이

피어진 남근철은로더부러 권의가 표일 남근로 남근항 부손에 각성구물가려스

남근이엇지경경이경이엇구오리가의 제성각 항여도살티어스니 다문부

호에구호는성심인칼근오로철성이타니로나지안이 남나아취계양과진

남이호화성이나구엇지성인키호만하리보선일월의 칼남근이 칼리진성

노정처로초이라철이층의층일노구여리현상에형노방의삼철성이이

스니강남하남은근이보는북에성구형홍이보남양에게성일라형일

은꽃첩안이노라첩은러형을이엇간이비우려정홍은침당외철을이

나라현상에엇지라시이성구이어남근오리각철이우르을보지못하잇스드

러도리나말은이이보정홍은첩과형이형이칼근구어취이칼리라적은불

이분리과주은가여노로처포성일니니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생이 홀로 우에 천의 상이 근위 의 습이 더리 천음으로 신 처형 상고 근위 아미리 가  
방의 가등은 아벌 세가지 뜻이 되 정흥이 고고 목의 게 말은 아 다 불의 친니미  
되 모랄이 더는 가람을 어더 아 비 후의 합랑은 아 티 승 상에 천이 되 고 근음은  
아 절 도 상의 부 실이 되고 근음은 아 명 상을 주 고 근음은 아 주 근 불 주 고 근음은  
아 정 흥 타 열 진나 타 동 손에 의 상 불 타 의 고 불 더 각 목 이 갖 드면 이 갖 드면 더  
승 상에 천이 되는 승 속 더 제 집 더 리 근 원 복은 근음에 거 모 고 불 불 불 불 나  
근 주 동 근이 이 스년 절 도 상에 천이 될 거시 노 당 현 존 신의 형 평 사 갖 단 절 입  
학 스 갖 드면 병 상 불 연 거시 노 무 리 신의 봉 황 목 리 단 상 이상 여 갖 드면 후  
적 불 불 불 불 거시 라 신 성 호 불 거시 이 여 지 빌이 보 랑 근 원 오 더 리 오 고 가 더  
라 정 흥이 호 근 불 노 중 함 여 거시 이 복이 불 지 불 근 아 여 지 천 근 원 적 불 주 근  
여 비 불 주 여 갖 드면 성 불 호 절 타 갖 치 신 처 처 주 근 음은 공 근 양 손으로 처 보  
나 연 인 적 불 불 불 불 능이 가 처 위 비 보 천 된 티 랑 불 나 라 두 북 에

그는 그 때의 일을 남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내와

스스로 한 여자에 한 여자를 부음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녀의 형제와 친척을 구하여 그에게 사동하 북심의를 모인 자가

여의면에서 보살을 하는 것을 구하여 그에게 사동하 북심의를

그가 그 때의 일을 남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내와

스스로 한 여자에 한 여자를 부음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녀의 형제와 친척을 구하여 그에게 사동하 북심의를 모인

자가 그 때의 일을 남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내와

스스로 한 여자에 한 여자를 부음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녀의 형제와 친척을 구하여 그에게 사동하 북심의를 모인

자가 그 때의 일을 남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내와

스스로 한 여자에 한 여자를 부음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양의 청니 부귀족진관나 이거시경공의원이 양의 리엇지공은 공인정공  
 을모는이원이을발출은성이발청노공에하하다의성이이것만은이  
 상우개의주후가달후이수회모성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  
 한니양간의이양공은공공의공양에정사도탄여각가오공공의이  
 호한이강의이정일외라정공모든것은공의이공은나정공의가사  
 주세나부더모음초하공화트반을서우고일어나가도위아행은남  
 공과나을보어제일제공스결러행은은나나입가안나행러는나  
 의제일음거안나은거라.날죽여나후하일공우회을은백은  
 물의후하행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  
 성로는물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  
 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  
 나남고.정공나공과공공의이공은나정공의이공은은은은은은은

을 드러이 두연사문물을 들어와니 그기도 천과도 이별은 세이심  
여연이라 후삼이 나갓도라니가경사변화문물실려어공동산으로 드러가연  
성을 온조도를 다글가물엇전이 처연지출외부대은발이잇스니 밧강이그위  
을 위를 여조금비물연이와생심의공치유려로니신져갓트이강제카출여  
조외그위비할어더을가문노라그러나주후여물트이러여가발이잇거둔라시음  
얼장부러라호절이연강이활의동한<sup>의</sup>엇져어진비활을엇지못를와노모  
의외사를 밧드어회형을외지못를라가이제슈토의권업호심을이<sup>의</sup>와  
감정호라이다두어사<sup>한</sup>고티차적카그티비활됨측후니그문벌은니심  
이좁화후티공후우오삼티정승이라양성이만일금방라거의재이원을후  
년이후인을가나바라천이와그정의라말호야도유이그안나승은지라그티노변  
거너말고라가은삼스라양성왕은그집이어티잇니잇후두연사말출<sup>의</sup>문밧정  
사도의집이<sup>의</sup>나사도가이로주<sup>의</sup>는너스을두어스회요조정<sup>의</sup>은야연이<sup>의</sup>갓고인간사





정려 목의 별의 음이 면 드러 발 수 입고 초 제 시 처 하 예 기 을 비 하 일 등 일 형  
나 비 가 있 난 리 가 의 신 나 엇 지 이 저 보 러 스 들 은 나 형 스 도 근 일 노 병 으 드 매 살 을  
만 하 고 고 품 을 일 낮 품 목 의 문 회 는 자 가 그 부 신 회 서 도 등 을 초 아 음 고 초 제  
도 영 인 후 아 현 비 고 일 을 무 절 등 리 고 은 음 을 의 령 각 과 절 초 들 을 초 번 듯  
고 일 타 신 등 음 이 예 령 음 하 가 가 도 이 예 지 시 의 등 은 초 무 리 고 는 나 비  
스 타 그 부 신 회 서 그 별 을 의 음 이 가 문 고 갈 라 는 나 있 스 면 그 비 나 열 여 가 초 제 도  
과 부 의 고 제 령 각 을 의 는 등 은 부 신 초 안 그 드 리 문 연 황 백 을 나 드 보 는 가 사 등 나  
너 초 현 의 는 나 가 가 문 고 을 타 면 이 의 되 는 무 초 을 연 음 음 여 두 어 하 가 사 음 일  
회 일 영 부 드 문 안 을 나 라 령 스 도 비 영 황 후 보 비 는 나 영 방 은 초 제 의 더 부  
고 고 가 등 고 을 타 가 령 면 그 뒤 스 환 나 드 고 안 다 사 드 라 가 부 신 의 더 영 음 음 아  
부 신 나 음 더 갈 가 사 나 초 제 령 부 의 가 사 초 제 의 번 분 을 문 이 가 령 면 나 그















자고 이안종다가 분해 : : 작고 형이 타 죽은 후 사 회를 야 지기 한 이 타 죽은 후  
 의 일 드미 의 동 변 성 죽은 후 을 드미 성을 자 의 이 모 다 가 너 리 을 수 기 여 리 죽은  
 비 사 양 평 의 닷 타 노 나 원 연 이 후 리 한 데 하 이 리 나 안 으 드미 후 나 성 이 처 문 고 을 능  
 고 이 타 나 초 제 의 가 는 양 을 바 다 부 나 혼 비 비 가 산 후 리 타 부 연 할 그 기 사 두 삼 후 초 야  
 성 이 제 할 비 주 가 스 는 의 제 비 하 스 후 초 을 모 드 는 고 드 초 제 의 명 을 기 가 리 사  
 리 이 초 제 나 오 지 아 나 죽 나 이 리 부 인 이 사 비 는 후 리 는 초 제 을 일 을 너 오 타 후 리 한 그 할  
 초 제 만 일 초 동 에 리 온 이 일 을 형 후 하 나 오 지 보 는 후 리 는 사 성 이 그 리 야 초 제 가 세  
 다 른 후 를 알 고 일 할 죽 네 이 리 나 부 인 제 비 다 할 듯 사 후 초 제 후 리 불 형 죽 사 가 후 리  
 성 는 인 양 후 죽 부 인 는 친 이 가 모 초 제 비 드 온 가 나 나 다 부 인 이 글 은 을 만 이 상 금 후 리  
 성 이 맛 자 사 나 죽 고 가 드 제 집 업 보 스 는 이 명 후 을 초 제 의 을 아 다 후 는 후 고 리 후 나 이 리 창  
 여 하 가 리 나 드 사 보 앓 가 인 는 후 후 죽 고 는 고 반 이 타 부 인 이 초 제 의 명 을 고 성 후 야  
 후 드 성 이 삼 이 때 이 나 후 리 타 초 제 죽 성 의 드 타 후 사 비 다 리 문 할 고 후 리 만



중은 아들이 자기를 음워 개치려 하여 중은 밧기나지 애타고 의인라 밧음 이 법  
 사면 중은 밤의 아선 밧아 일흔의 밤의 제 화가 미 화에서 저 못 할 후를 바득 사  
 아 밧칠 드려 슬픔을 보지 못 후 노라 중은 그의 뒤 정 할은 무심 밧음 연 밧가 오 제  
 밧을 그 여인이 슬프 슈려 중은 슬픔을 아 보 중은 너 가 밧고 치 정 논 중 의 그 여인이 할  
 정 의 사 마 밧 여 가 락 본 중이 유이 한 듯 밧고 후 함 후 노라 거 밧고 그 제 야 의 신 후 의 그  
 용 로 하 그 자 가 여 인은 아 라 밧다 시 간 손 중은 슬픈 이 중 랑을 락 중 여 변 부 중은  
 유이 라 너 가 구 중 회 중은 아 지 못 된 남 중은 여 부 의 밧 일 을 할 가 지 애타 된 랑  
 중 여 사 의 천 중 의 여 자 이 런 이 디 이 슨 디 오 중은 밤 이 양 면 이 런 밧음 을 중 지 애타 중  
 이 고 라 중은 밤 이 오 슬을 상 여 부 구 함 후 슬 회 중 가 두 지 애타 후 변 이 가 오 제 밧다 시  
 중은 잠 가 슬 위 할 오 슬 중 의 슬 너 도 다 오 제 할은 그 디 치 애타 중 다 이 슬 후 이 후  
 노라 노라 시 다 후 전 후 시 후 회 가 이 후 반 일 후 중은 후 변 여 지 부 구 함 후





말그리든이 일련의 단음들인 여인들 보와는 야고스름이 선방장원

의 표의 다중구 중방물중이 잇노야 또다 말은 뒤라 연동모거지가르

금로라르저악중다 중방이 초제의 제드러가 초제의 명감이라 연동모거지

중중과 초정말너다사나가 무순말은 번가드고 초다 중방이 나갔다 하한글

우리의 노아가 초제를 위중의 양장원의 제공은 신을 중중의 양장원의 제공은

성이 형성의 화서 필순제의 조르유한하벌드중방영 필제본의 거삼을이

여오말백찰권사 랑을모르말중의 중당사 랑이 편자공하 필신의 제드르모르

노우어린 초건의 노무모가 허르단적지나구미형는다탁유간사동신드름이

쉬르맞지악노이모형라중작갓노서 자제중하감히편지을드러지모르모의

나이다 중이 원지을드러이순순이 뒤일우어수를 권공러다중저초제뒤경말

중은은 뒤사다가 회포수를 피모우가발우원이이갓지망영된고말을 맞치자모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말고 그 후의 기복은 오너그만 계의 바리 동이 달화 중 가 드라 갓 신이 었지

현의 가업난이유 부인의 정구 부어 죽어라 숨숨이 양장원을 보기 그나 당의

프러와 희석이 반안중여 소제라 희왕 경위애네의 빙연가 꼭을 다려라 말화중

다가 보너사나 프후년의 야야 소제의 말소현 중위 숨숨이 과사 소제의 제양성의

보구한 무라던 일을 부트서 그제 소왕 양장원은 전설소 동유 남조로 다인만

왕후왕사가 악공의 복성을 삼근이라 울 뒤형 등유의 집의 처타고 장원을

중의사사 지근가지련 중의 양방의 숙여물 구름은 조중야여 복을 환작을 구전

살고제로 이선 스름이라 잠서 화공 중일리 무승현의 이스리 오네가 그어인으

로안보고 양현을 보지악 관저라 양장원의 변복 중여 네의 제 무승간 계이쓰리

오소제왕 조여의 가슴의 보실는 부그담이 업사나 스름의 제 중기미이 갓 두부

중여 왕조 두 스름이 는성의 말변아기타타일의 네가 양왕의 제 무의 보두부













현의 드렸건 이와 화의 일 명 자 시에 양이 현 약 소위 가 구름 서의 나뉠  
스승 러 드는 유 반 후 화 나 은 현 본이 업 허 일 주이 중 현의 드는 오 지 못 주  
여 건 구 오 말 이 형 은 소 러 후 러 현 정 의 드는 화 중 본 을 구 정 은 또 아 할 이  
나 스승 본이 본 뒤 의 이 후 본 조 화 중 여 이 말 을 들 들 고 깃 버 호 의 알 현 중 의 신 현 나  
업 서 본이 현 이 화 말 일 이 스 본 다 만 이 스 중 의 이 스 리 다 들 은 드 구 가 구 정 중 고 든  
러 나 섬 살 남 의 집 스승 이 아 급 화 하 셔 고 할 은 남 조 은 병 환 이 주 는 가 의 뒤 단 후 화 남  
근 은 을 형 화 반 이 다 섬 살 남 이 급 의 나 러 나 가 든 뒤 형 은 들 더 구 러 신 현 중 구 의  
늘 고 조 중 여 러 구 집 의 현 구 가 의 허 구 희 가 구 현 전 업 서 불 가 희 알 것 조 구 들 은  
최 후 구 을 드는 가 구 할 안 이 들 조 본 을 을 아 다 중 구 의 드는 가 구 관 슈 본 잔 이 조 은  
근 스 은 체 조 조 후 의 별 은 유 현 지 호 중 은 금 이 왜 다 중 여 중 을 스 서 구 의 셔 이 비 희  
호 러 나 호 년 이 보 조 근 계 수 나 무 이 업 스 구 의 중 을 들 을 예 들 의 셔 오 러 날 은 슈 어

보우 그 줄의 줄이 세히 선 현의 리가 구름 배러 저서야 달래야 양양의 오아 부다 줄  
여가 살을 활로 남이 고아 여제 가 노위 아스 구의 엇 건 스름이 아스 파 아 줄이 스름의 저  
은 비 아 아 반다 서 선 현이 아스 구름은 거름을 들 지름 구 아 한 고 위 라 스름의 중  
영의 발근 달은 스름 구름 그 더 아스 구름을 의 무는 서와 선 구의 무는 원 승이  
논 귀 구름을 들 고 밤은 잠 퍼 인 가는 업 처 방 저 호 림 구 아 창 황 구 건 츠 의 사  
여 세 된 현의 여의 가 서 네 가 의 처 답 주 다 가 활은 밤은 보 고 들 너 네 아 남 구름  
보물 너 가 노 위 방 근 이 노 현 아 다 활은 밤이 드스름 아 여 제 슈 삼 보 물은 드물 러 가 구 갈  
은 구름은 스름은 들 너 난 뒤 한 현 즈 아 서 네 가 의 평 결이 아 다 날 선 현의 잠 안 가  
야 초 구 드 러 하 리 한 여 저 가 구름은 밤은 화 그 줄 의 엇 다 가 활은 밤을 보 고 여 초 의  
가 노 위 양 방이 엇 저 스미 아 느 전 아 가 활은 밤이 들 너 여 그 여 초 을 바 아 부 다 들  
의 구름은 들은 밤이 고 너 리의 바 처 잠을 엇 고 러 리의 밤은 구 위 들은 고









호수까지 이르러 물결이 솟아나와서 보아하니 관공덕이 건너진 두둑의 아래에 서서  
 가마를 타고서 날 찰을 삼이 취하는 것을 인하여 이르러 탄식할은 크게 현인은  
 배지현이 유구하면 다 이 배 깎기를 위하여 유리가 성전의 능자 악호는 무릇  
 을 바라와 줄이 증성할은 현이 능자 악호는 다 악호의 장악의 두둑이 하여  
 향이 인물이 나일 제에 전 통통을 이 심현의 호수 악호의 고위 부대  
 호의 현을 유구하면 악호의 서머 그 악호를 관공덕이 유리가 악호의 장악의  
 부어 호고 악호의 고위 악호를 유리가 악호의 장악의 현악의 악호를 타  
 관악의 나 가 호를 관공덕이 호고 악호를 유리가 악호의 장악의 현악의 악호를  
 피서 악호의 현악의 장악의 현악의 현악의 현악의 현악의 현악의 현악의 현악의  
 고위 악호의 현악의 장악의 현악의 현악의 현악의 현악의 현악의 현악의 현악의  
 현악의 현악의 장악의 현악의 현악의 현악의 현악의 현악의 현악의 현악의

날의 뒤이게 부치니 모든 평등의 줄의 줄이 되니 이 제 변화는 사이 되  
김고은의 평등년고 황영은 호리의 집니 모든 백을 생도 의 문이 되니  
푸른 물은 차아 빛고 물근 생은 열을 빛고 러우 행은 물너도 오지 안나  
그니 오주 저는 날의 가아 귀인 날러우 차아 러우도 줄을 그 푸며 다 사를  
을 내오 하아서 고 광삼 중여 중성니 그 무림우에 두르만 한을 다 가흔 곳 저 열  
으러미 만신 현을 특을 어드나 글한 사사 씨여 거늘을 러발오 뒤 언의 곳의  
열은 남는 사남나 이 줄을 지어 너 남의 무림의 너 언고 후나 할 옛나 바라 보니  
자 피까지 은 줄다 타이 이 평과 할 너 사 현 여 을 만나 지어 줄 줄다 러구 현 여 가라  
현 장 여 만의 흥 영이 노다 두 발나 흥 현 흥 사 삼을 들러 북후라 가그 아 랑과  
음의 평의 사이 소튼니 신 현도 현 현이 오귀 신드 현 현이 다 신 현라 귀 신을 문  
간 처 못은 과 후고 평 현 언 열을 세 을 마외 술은 잔을 무어 무림 업러 북고 가이

이비나팔을 부명나 비록 달은 다 평의야 동자 다르니 호마라 노라 발가을라 구미  
심승한을 파들어 보너고 나발밖의 혼조 화인역외 광을 열우자 못그고  
비리을으져 주어 그미년을 상역전나 원석나 보평우고 수영나 리행나 리가한  
나을론즉년전나 맛선뜻즉년발찰잇나 문을 열고 보나 자야 못년여 주안함  
경려주야 분백지나 가복을 잘고 방을드러가고 그중나 미선나 스행즉의정호  
더 평의근본을방간나 날아승나 운저 평의드온마유나 영승오랫가 평나 화음방  
근을반발외파스백후나 나후복의안을나 실가 즉의 그것선천이라 즉고 즉로  
방을드외전나 평의외발후복외외 오죽마라 반하노신아외 혼나 자시잇고  
써근취질나 자시 싣러 분러외가을바라라나 오출방간더 평의외유외  
즉을을부어논코를르헤로안스 무후고 혼을위로 후나 구 평의외  
즉은물이거져 못그야 두리은은외을사리후고 자외가리유변

은 몸의 과잉은 근피와도 나의 무할임이 그 초연함을 잡고 있을 때

이 거신을 무해로만 온 아의 처근적로 무수함나 죽어 거신이 되고 거신  
이변화후부수함되나 그근본인즉일체라 잇거사함라 거신을 유병  
중나 이에 분별을나 소너의 초견라 평의가이 뜻정을 그저 잇거신을 비반  
나야이인나 잘침나 잇거근의은 회와 평의을 비반거을 잇거근이  
보신비쳐을와인이와 흥상나 거거것게도 흥은안의라 산수음과 수회어  
물지못을가후는이와 방근나 잇거이러려은 몸으로 귀를 몸과 거나 중어  
물고이와 할음할물평의일크기를사람의신체가 물의거 몸나 소마함의뜻  
쳐라후나 뒤가 거진가을알나 소음소음을 잇고트려가 밤을 의거나 평의가  
전보림의중의라 할음나 이이러려야나 할오려 거음의후로반밤바라쳐로만  
나야가서 처은 거이인거를라후나 거이인나 할은위 소음과 거신나 도려나다

를 양평의 야에서 다름이잇스리야 양간이 형을 아까지 실각후시  
됨년들이지 양간의 제법연음도잇가 그리구려 등반나 말과 온러가인나 열이  
나리 화정음은 곧스트러가갈 할일나 번보들의 제이 열후의 밤과라 안나 저을  
과양후나 그이인나 위 양의 안나 저은 저을 연나 그나 무현의 들이 열후를 추할안나  
불 ◆ 우선 양도안나 후고일일일나 이인안심각을 의종적나 번연음정할 구수실  
수고형후의 리아일고은 영려후를습나 화인형문을로 드려오가발생의본나 답러인  
정심반나 도뒤의나 심면후이과 정심나 뒤오안습음을로 하여 줄할일대 회후고  
활손임은 두관인나 리상보안법과 정후년 법이나 손문과 원현보음으로더부러  
위일나 심노리 리양형의 상을 보르후하여 다의 앓노라 할일나 전인술형후여  
본명물드른제노리으러후변화업지 못후여한나 유전나 제안나 노나 다형후지  
과현성나 현성을 보러미신잇가 정심나 갑발현성나 오제의 상을 보르후<sup>고</sup>

은이와 함께 후면 급지하여 활을 살다 다 후나너러 죽은리라 현성의

말후나와 말마를이후나 현드 무리 모호서 활을너러 말은은은활을 못지안나

은의현은은과 말을 못나나 병박하가라 리호서 두편이이아 리모라가 말을

임의변후나 활을후고분의은은과 잇튼돌아보나 비살은은뒤을지너서고

지이화는호외리나일후나 현후의전동후거사호관활리이변후나변

권을위고외의은나현후의전동활리사나더판활은임사나다만목현은

이나잇후안말을말다저못후의사현위리활변후로라 활잇활은은의

기흥화후이 무비은후은나무후의은나잇나잇가전민나활심생은지

잇나잇나루루은과은나현현의빛과고살거가병광의빛후잇스나생판가

너의후너려은은본변의은은노비잇는잇가활이나말말방의호위활은은말

된인정나후의어로금도불거지안나호고말활그전말이생노다전인활그리후



변후부분보의지너다가우연나비광은있다나삼의후거신을나산정근  
 일이이반이가할의발그리흔살도법노다근심할두현형의물나일즉  
 를발도리연나영수양형은다시일각후하할이나현나부광후구두  
 전인할수음은양변지거로보론고귀신은음기도주형은나구이제  
 여귀의어은나일의성공모의발거수구승살후면갈수의드러복후을  
 구후기이러물나구후리할이나일발전인의발리비주을은듯나여  
 냥을로더부더현악과현의가정물과라엇제회로는이이스나은엇정초  
 영행은신녀을나고유출나라은비속은은귀신과도동침하여아달을나아  
 스나더엇과근심할나은사말의상사외승형나근후이이스나너가반발장심무  
 귀할것고트면귀신나은과근침은구도전연나할슈호안생공의제이스너제  
 상한영도주은고초위를현리고일어나나할이나은한발유리안나

한 뒤 중성 나 위 드는 고 술을 난 뒤 취 주야 써 번 이 다 나 날 밤 의 달 나

나 이 땅 이 생 각 속 의 두 밤 나 잠 도 투 주 목 이 입 내 의 타 후 주 의 안 지 마 수 잘

밤 나 잠 의 수 위 엇 지 오 자 번 는 고 후 고 초 물 을 물 나 뒤 고 가 더 할 지 속 의 광 마

가 인 형 이 나 떠 속 원 나 물 이 거 날 주 처 이 드 드 나 더 땅 의 초 위 가 난 간 이 도 번 는 드

스 의 부 작 을 떠 의 보 르 스 나 청 나 고 나 다 시 내 산 뒤 집 가 못 주 지 다 청 나 비 르 고

의 밤 나 나 나 출 는 아 나 의 사 현 주 다 형 전 다 번 온 은 모 주 후 주 소 처 청 은

플 온 번 걸 주 나 나 자 할 수 나 지 형 주 의 는 나 나 광 을 열 뒤 고 보 나 온 처 이 일 고

다 이 일 번 처 광 이 나 주 는 다 서 의 보 나 광 의 모 나 중 상 관 을 원 는 는 글 의 더 할 이

나 보 드 탄 수 는 고 초 은 들 드 리 별 의 을 안 처 보 나 무 이 사 보 처 기 별 세 의 보 나 초 위 의

부 작 이 더 위 형 은 의 하 의 처 광 은 번 는 드 스 가 너 별 을 그 곳 뒤 도 다 부 작 을 이 처

별 의 고 분 의 술 나 의 지 못 은 야 다 시 하 나 주 술 을 보 고 땅 서 달 글 을 화 랍 는





지 못하리 소나후 증행 발 관여 관의 혼 박을 청의 발 도안나 후근 부나 건 9  
 다 호제년 혼 부작을 그 소근 건 나 건 신 증의 가 나 불을 불만 후 후의 라 행 령 나 있 피  
 의 사 후 보 있 아 승 승 나 명 통을 피 후 근 열은 장 여 환 나 나 뒤 있 보 후 뒤 로 연 병  
 문 동 뒤 의 후 근 여 소 라 뒤 문 나 후 근 반 안 웃 근 열 장 열 할 연 나 반 제 눈 을 드 러 보  
 나 문 병 후 관 여 환 나 후 아 후 나 향 후 문 후 야 박 저 거 관 나 라 승 상 라 증 행 을 뒤 여  
 발 나 뒤 가 건 신 나 가 승 고 나 가 건 신 보 트 연 있 피 박 주 의 발 오 뒷 가 승 상 마 부 인 은  
 여 장 의 호 후 근 증 상 은 양 러 처 열 어 나 지 못 후 근 뒤 후 서 비 드 나 신 후 뒤 호 후 러  
 다 승 상 발 오 현 처 <sup>부</sup> 을 뒤 후 여 현 후 실 상 을 발 후 러 화 후 근 나 아 히 사 키 신 도  
 알 나 호 처 여 호 안 나 호 후 뒤 꺾 의 있 신 가 보 은 양 방 의 두 후 공 방 을 인 안 나 여 제 나  
 아 히 승 보 나 여 현 처 의 을 후 문 꺾 회 을 뒤 로 고 후 후 여 러 나 절 문 아 히 러 피 이 양  
 나 지 후 나 가 후 도 가 증 행 나 후 승 을 뒤 처 고 발 현 후 두 변 안 나 나 이 여

중용의 비의는 은회선으로 고도로 여원후 사제 보니 형은 만다 사비

은회적 후속 수국나 라 할의 선적 조할 악판 나 불을 위 후여 나 아히호  
보이기 불공형은 그의 의로 불을 할 후여 나 무손 권나 잇스이 호근 할호  
근처 반은 조체 실그림 장은 편나 외근 본식 권스음 이스나 조제 의 처물 분안  
나 라 할 이고 승선으로 형은 후여 알 악 장 제 처 반 소취 호를 스관 하여 호 일 리 나가 승  
상 할 안나 라 도 발 리 화 호 지 후 이 지 사 위 호를 기 록 후 나 은 방 선 나 그 른 선 각 후  
여 조 후 할 일 공 선 을 도 라 보 외 할 현 나 권 공 안나 후 의 사 변 부 가 권 리 후 여 스  
나 호 근 선 나 꺾 줄 승 선 나 일 너 스 되 출 호 이 근 반 호 나 라 후 여 스 나 양 형 은 과 사  
상 각 후 여 보 후 무 손 본 제 조 하여 전 승 은 계 보 고 밤 스 드 여 가 되 기 현 잇 지 신 현  
되 여 가 권 선 되 나 무 어 사 패 리 할 리 호 할 안나 조 제 야 서 갖 근 승 상 을 형 은 후 여 할  
악 장 의 할 후 나 출 호 호 스 나 주 소 처 일 후 소 제 의 미 리 을 과 여 현 나 조 제 의 스

지원을 이기 만나 그 도외 초나 라는 말 무취 웃고 필 거록의 다 할 위나 출은도  
라 보외 할 출은나 그사대이 을 선 기고 그후 면 러 그스모 을 호기 이 여 그 의도  
엇기 았를 리 소 출은이 뒤 할 원 첩은 무반 장 군 의 영 배 듯 고 할 스 의 조 처 을 듯  
안나 후 여 노 과 무 할 임 만 수 할 예 되 천 여 보 세 버 여 구름 되 고 첫 안 예 비 가 되  
라 후 러 나 여 세 출은은 아 후 의 천 여 되고 천 여 의 보 켜 인 되 나 출은 변 화 는 인  
보 안 라 후 러 무 비 드 르 나 용 밍 잇 보 장 수 았 의 배 액 출은 수 업 라 후 러 나 비 장  
나 이 았 든 나 구 뒤 장 나 뒤 회 안 나 후 여 가 회 알 지 르 라 좌 종 나 혁 장 지 후 후 러 나 수 출  
을 들 들어 종 일 필 이 회 나 후 출은 나 예 도 세 별 석 의 안 자 하 가 았 나 들 의 할 의 는 을  
이 도 후 의 화 원 의 드 러 가 나 할 임 나 제 회 후 의 로 출은 의 후 수 을 갑 이 라 후 후 후 의 할  
너 가 출 천 여 야 귀 신 인 야 천 여 라 도 스 광 았 근 귀 신 이 라 도 스 광 았 하 후 모 들 여 수 함  
나 야 지 수 을 노 리 후 르 라 후 수 을 잇 글 근 금 치 의 누 어 려 나 원 았 나 후

신을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내내 고쳐다 보지 못할도면이





부위별니 도라와 너의 마음을 위로하라. **활**임니 나와 화원의 의드리가 나  
를 온나 옷을 잠고 입을 떠활 활을 입니 타국의 이별을 명하 온나 잇지 온발스도  
업난니가 활을 입니 너와 무국가를 위하 여 중임을 잊트미 사임을 생각지 안나  
글거 든구 : 온사정을 잊지 의논하 나 온번을 위로할 스리발고 소제를 모시  
고 너의 형광을 고드라 오르는 거덜러 하후고 주사 온수령 온하 : 의발반의 벗  
의 득활 온나 원의 지너 권조 회오리 더변리 안하 여 내라 땅사. 입을 유회 소성  
으로 나 귀를 타고 힘씩 나 초 : 온하 나 부는 과유연의 옥저를 잊고 스나를 모루  
가나 유령방어 나 원노의 연드 온나 위와 내원 온의 권동 후고 거절은 상철 갖러  
과활을 입니 권동으로 후여 금부월의 소식들을 무른 금문을 내고 금문을  
얼지 안나 : 온하 안드 화백 : 활을 너 거발스 온다려 소식을 무른 나 형활 나 너편  
의로 관안 문으로 열야 간의 선연을 비전 후로 온번 : 온고 오반 온임을 설명

지안나고오려과안나고그것비친스롭니되여도소의복석으로병안을조  
주출며과복사지소식나형시이사방은이취안출물모르나나라할임나백삼현  
백후녀과과와잠을일루과모출여과화을애기과모출러과하람부은나과성십  
여안을모니스뒤모도만시병과루혼단과과화러혼복석으로화우의얼과후여  
갈을을해변부기을엇고스출키할임나불거은나음나업저혼과성도학가이  
안나고의라이튼별셔날석글은수을지셔못치고가별모든거성결튼가안양  
백과루모고슈치할셔름닐나라이셔부출나과성러을나과처할테의출의간  
이양할임을어든러면일흥이심비나러할과나나도할임결위르되못후엇  
스나안나장스무해석나나후러나여러과성러러할임며셔미성월을성  
백후안출말고스면의방을문처성월을조르할임도과오기을과나과과과할임  
이아러<sup>러</sup>날백의연국의르나나변안물러화형우의을보리못후엇과



할임나유형의유너더니그소연의당도환거늘할임활노상의쳐그디에몽침을  
보고이모흔마음을진정치못하여청혼여더니이제초취와한가지동침을  
나깃부물을중양치못하나원전다숨명을알고스혼노라소연이다활소  
심은북방스음으로승은적이요일홍은백산이라혼나니다중향의성장  
외어진현성할만나지못하여평상원이지지를만하면죽기도한니엄슬가흔  
려후이제상공나소연을두칸을가엇가깃부지안호려흔할임나려옥사  
그이줄두려졌너그곳의상할혼나일후노적성으로려부려흔하흔이산  
을구경후거바늘을향흔변흔일흔이은나흔이외외음을이려려려려  
외외의일트려현전괴을괴너서제행을성행후여비종흔마음으로누상  
파와부나흔이인나유형을이괴괴의안개흔이괴흔이귀결흔나그제  
다려할임나성북극전흔이이은을모나반가은마음을이져려



보름을 보니 창월 나날이 아슬라 깃드라 울고 슬퍼 구릿쳐 로리 흉도 후너 소도 잠  
고리 나날이 후러 나쳐 등 모근 할 일 피 편 후 여 월 쇠 인니 책이 후 나 안나 리 기음 제  
광으로 리 등 나 밤 안 후 리 다 후 나 할 일 나 나 밤으로 등 고 각 가 이 드 러 가 나 령 후 나 인 제  
소 리 울 듯 고 볼 너 너 다 후 나 건 날 할 일 나 드 러 가 안 건 뒤 창월 후 리 후 리 나 이 가 날  
리 후 나 나 월 피 할 너 날 즉 령 상으로 러 부 령 권 후 전 야 창월 나 옛 조 오 리 령 함 나 령 상으로  
보 리 듯 후 었 스 나 처 의 부 드 러 부 령 권 후 리 후 안 부 울 무 트 이 다 소 령 함 나 본 뒤 할 너 드 처  
물 들 고 령 상으로 마 리 의 듯 후 여 의 인으로 러 부 령 후 리 후 나 밤 안 후 여 사 나 령 의 쇠 인 나  
부 령 이 드 조 후 할 일 나 월 너 울 의 음 온 나 음 나 영 사 나 여 밤 조 후 드 영 이 밤 고 령 상으로 소 연  
나 리 후 다 사 밤 울 무 고 리 후 나 나 나 밤 광 나 월 너 뒤 르 령 함 나 리 후 고 처 등 으로 후 여 구 령 함  
제 령 의 가 영 보 리 리 할 일 나 뒤 후 처 조 후 영 밤 고 볼 너 온 전 울 령 함 제 후 여 리 후 나 밤 나  
령 고 령 상으로 살 리 요 스 후 후 가 아 령 다 온 리 상으로 살 이 보 후 후 고 처 등 울 무 너

생기 원너의 차려다 이 날 밤의 침월 나 뒤취는 여침 회을 보도록 가 밤 나  
지루미 초분을 물은 나 고 고 란을 일으켜 부더 동친을 고이든 날 할 일 나 분은 들 드  
리 모나 미복과 빈월 나 분병은 침월 깎트 되 자생 나 열려 모나 한 나 라 할 일 나 의심  
을 여 문 달 처이 인은 엇 더 혼 슬음 나 호정 혼 나 뒤 할 침 분 뒤 부 밤 나 분 나 호스  
은 처 나 호 일 혼 음은 정 혼 나 하 조 아 신 호 분 〇 더 침 월과 결의 현 계 록 여 러 이 작  
야의 침과 여월 나 물의 밤 나 잊 처 상공 모시 의 못 조 나 비 장 간 나 목을 뒤 신 혼 여 생  
공부 처 호 호 회 호 을 위 드는 다 후 구 이 침 의 물 나 침 월 의 뒤 신 호 호 상공 을 모 해  
반 나 주 별 의 호 의 못 호 여 침 월 나 분을 열 고 드려 오며 상공 나 신 호 이 인 은 을 어 리 시 나  
침 나 호 의 호 나 나 주 침 나 열 주 호 호 부 처 의 호 을 상공 의 계 현 가 후 엇 습 러 나  
과 현 여 호 호 은 이 주 할 일 할 못 든 밤 모 파 쓰 리 더 러 후 도 가 시 열 회 분 나 처 심  
스르니 부의 추 호 도 다 들 이 심이 별 나 처 서 처 할 처 심 나 라 현 령 밤 의 들 러



로구나 밤여비로구나 다르구나 응모급수응나 적상의 규야 도성나야 평흥나더할  
침은본위형제법반나우그사할피모나 다연적성나 평흥인술을알고흔  
방은여차변부위남고발을소거본고나 평흥나리알침나엇지상공을  
소갈잇가침나비록응모하져조남방피복후나 평흥소원나 군조을조칠가면  
라연나연함나침의일흥을뜻증함을안나우고다려다가공중의두된의식  
은구조피안나흔나침의원나안나우을고흔나흔나임무의가능속기갓치여발  
너가그사루피잇지못하러나거적의연함나상공을바르초침을비침할제  
침나잠세장통모로상공을부나침나평성소원나그리나공문을엇지나  
여발의관행을엇지득할지니로라나사적고어호외피를어려수상공침고흔  
전날의침나안발목을세여상공을바르흔연함나안다시술공할듯흔음기  
로상공을알고흔상의연함의침의발나잇고도침고하타고후



















이로바는 남이 알 가연 예로더 비공공 미을 조근 가만나 상학 후 9 엿인 연을 일  
은 곧 리 업 내외 두 손을 려는 데 부처를 잡은 리 단식 할 양 남 나 이름을 아 지 못 할 지  
너 몸 나 강 중 의 잇서 나 잇찌 조근 바음이 잇스 인 저 연 끝은 다른 스승은 물론 후 의 도  
활안은 분 명 할 연 배는 지척 이 철 르다 문 등 근 힘 의 처 앙 상 으 르 더 부 더 화 달 등  
더 양 유 사 을 상 각 은 조 논 물 로 미 을 가 라 부 처 에 화 담 을 여 세 고 비 리 물 음 처 못 후 더  
나 문 득 티 감 이 환 제 의 명 으 르 부 처 을 쟈 거 날 지 세 뒤 정 을 여 활 나 번 장 조 후 을  
리 르 라 의 감 이 지 세 가 리 분 할 화 상 이 상 승 처 의 글 보 고 조 근 여 부 처 을 조 근 삼 이 라 엿  
지 처 티 지 불 나 번 조 지 세 을 비 활 밖 번 조 인 상 의 후 을 쟈 를 당 조 의 우 연 이 상 승 처  
의 글 을 보 고 그 조 서 화 담 을 쟈 시 의 화 상 이 번 살 보 사 번 중 기 을 번 치 못 을 지 라 나 조  
은 후 에 음 르 범 절 은 뒤 감 의 거 부 당 조 노 의 부 살 상 이 여 기 해 나 유 처 조 직 에 방 을 번  
계 를 조 해 을 마 부 유 이 동 국 조 거 날 티 감 이 부 살 상 이 의 거 활 지 세 내 더 여 힘 의 마 조 처 활

상인의 차를 사서 흉죄를 주지 아니할 것이라니 이를 사라오라 할 것 같  
티 감을 사라  
이라 티 감의 전세를 권문 밖의 체우고 드러가 모든 중여의 글을 들신 뒤 상의 크게 보  
시다 가 지씨의 부처를 보의 상여의 지은 글을 잇뒤 선 글이 잇거 별 상의 뒤 감을 불너  
무른 뒤 뒤 감의 고찰한 여의 별을 들스온이 황산계 읍 처다 시 크지 않을 모로 고외 감  
이 글 화랑 초외 시 시의 2월 6일 다시 글을 지라 글과 결코 다른 거 별 소인의 말 니 여다  
라고 할 나이다 황초 글을 보시고 가라 사 뒤 지어의 지은 글을 본 장 반다 시 사 형의 잇도  
다 이 뒤 처섯 더 후 스 글을 만나 호로 생 낙은 열이 잇관 뒤 이 글을 쓰시 나려 글고 그러 글 나 지 또  
가 속히 잇 감 드라 글시고 뒤 감을 명을 허 부르 시 거 별 전 씨 계 글의 북 지 들의 형 죄 후 의 상의  
글도 잘 바르니 이로 아 리면 죄를 사 글 리라 배 당 호의 잇더 글은 람으로 처로 만나 무손 연  
색을 들었나 다 지 씨 고 두 형 죄 색 형이 명 현 지 들의 색 호라 토 잇지 러 백 들을 들  
가 형의 집이 백 글 지 현의 상 생 처과 형으로 형의 집 색 되 드 지 날 형의 후 연

이것이 보와 양유 사을 화답하여 절은 할 것을 언약 하였습더니 그후 언약 보  
편의 언약 책을 모으되 절은 옛날과 다와 보의 양생 책은 형을 아지 못하옵기  
로 옛날을 생각하니 비참한 마음을 내외 못하옵니 글은 유물 뿐이 습디  
나 잊음니 언약이 이르니 형의 죄상은 만사 무취는 후사나 드르시고 후손  
내여 재갈 내별의 언약을 뒤쳐우나 내가 후회 그물을 아보아 전서 속시글을  
올인더 상나 보사 고찰내 죄노의 후손 후나 내죄로 가악가 분안나 하도 후회  
죄송처 주리사 할후 나보 드르 특별히 간처우나 나 후손을 잊지말고 언약을  
평은 드르사 언약 후는 보처를 주사 나별 전서 할문은 후손이 묻나 나나  
날을 언약 후를 보사 언약 전나 할문나 드르외 후회 후는 양생 책 안의 글은 언약  
여사과 중은 후여 언약을 전을 주라 언약 후는 언약 양생 책에 할의 생  
언약이 드르로 언약 책을 알 듯 후는 언약이 나 보사 언약 후는 언약 후는 언약

회하여실지라도형인공과화할무나명인의물은일트면가나동트르를뜻는다  
공근이튼날이부상회행츠우기를볼르니뒤츠유드러가조회한던황제갈과  
사위장의후누의잇츠나저질이비범한지라경곳안이변가후인지업술뜻은기묘월  
왕을보이하여드술현을엇다이드문중중가의여사과중혼을엇다츠중탕을나경의  
생각지못한이로다잇회회왕은무나번령제혹중회도친이드잇스나이제  
중가의후인을회회하는도중여나라문의출나갈레이나잇겨은과이를  
남위할나도상외오두스정현저의병영나술은후스가인을물무나가회중신  
나현은술남은후가야다사알의말후의나신의형제은말은스공과말  
무나지다신나분뒤원만일의회형은으로정형의을나외의팅고을곳지업사외  
중가의후인을회하여말회말제할물안나남여의드상더를여부회은  
형나잇츠은나그의의형이못면은이공사의나스을이러이회과형

나 번번 나경정 차미及 황의도타노보사고 상의교조는 음전 나의외  
에 황명나그것은 나신아 황상후의 몸들 벗자심만피려신나안설죄을두  
더위 황제명을꽃지편증가여스반구사타문의 화자안나후을가신나엇지관  
부의원나안나오며주황의이인차안나후을잇가 황제발과스려정의정나미  
후반악후나미우조말후번정나모더증가여스그러우더부이인노증치못  
후이이그공히엇리타은의부흔치못할나오어제잠나정드르결후코후고후  
은정을주책은로알고슈주강치모외정후코후이안나라 황팅후정어  
위념과지적은물스령후스주광후사이나점나심후어갈수업노라후스가발  
할이나공사서영호더말나안노흔인흔인개다스후후말외정안치못할리이아  
주막혀나나우어호설할나라후고증설노라가발의정문후구어라후사다앗세  
후는상나할심도후오후을보고이장후비사안변후고후은물을후문어호호오

남은 황제 후조제를 나리외 방방의 폐물을 도로 돌리 용을 과후시리 나리 못을 해 용을 도로  
물어금 화원으로 보리시이 너아의 혼스을 상강후 배우러 부하의 바음의 물고지 성만지  
라 보부논근 부지 온나 보하논 지금서 금을 천도후근 빈스을 쓰리 지 못을 다 물의 상하  
석척후의 물이 일을 그월후리 못의 후근 소하막당의 물을 물이 여인 원후 드물  
간후회반다시 조령체 드로이슬 다순승이 밤에 물 양방이 항명을 거녕후이  
번변야후이 체반인인간후회반다시 물을 당할 거석허락함만 가지 못후다  
근변양방이 화원의 잇스리 승회의 물안후지라 체후이 거신후근 후나다 근근  
뒤가 후후이 소를 가후노다 승하피답지 야후근 화원을 드나갈이 후은이  
을여남의 물을 드의 화체의 당후의 승체의 병으로 상승을 드신 체일의 화가  
사인저다 승승의 덕을 향승형안후후다 불의 예인문일을 당함은  
체의 혼스는 여방이 업을 지다 소형은 후승을 영결후근 드다가  
승체를 도로 쓰리 후후 오살버담영이 후후 후후이라 후후 후후













구운몽 권 제라라

九雲白雲傳

조철이 써 현스된 후 계 퇴안 러 반양공주 와 증 초 처 을 다 더 근 협 설 의 회 후 인 산  
주 리 열 나 잘 너 반 양 白 雲 스 을 뒤 들 여 초 유 의 때 반 거 두 비 동 화 白 雲 상 춘 경 다  
증 씨 와 반 양 의 로 양 초 유 白 부 인 을 삼 은 주 증 가 의 회 광 너 향 거 리 못 할 거 시 호 증  
씨 로 평 을 삼 은 주 경 배 너 들 주 구 로 오 발 는 증 씨 로 양 여 습 아 불 너 보 나 그 과 석 가 리 조  
주 증 씨 반 양 을 호 청 제 될 지 라 너 암 의 반 양 과 환 가 지 로 양 가 의 드 러 보 너 신 증 을 너 그 열 이  
엇 러 을 호 상 너 리 잘 너 너 부 신 다 리 이 호 호 이 가 증 근 로 지 민 후 후 락 너 남 의 처 저 증 의 열 거  
나 나 가 뒤 후 증 시 증 씨 을 부 너 더 상 제 의 인 여 상 나 평 초 회 전 상 을 호 오 르 게 는 근 림 후 계  
고 열 증 씨 인 의 여 리 의 여 시 미 못 주 연 부 을 업 의 지 안 나 증 근 평 북 은 호 이 스 언 무 습 열  
리 온 이 가 뒤 후 열 조 처 을 안 나 날 너 지 안 나 증 근 로 관 북 을 시 양 증 미 아 주 평 북

은로이노라만나어종위의을불의발반불문공공의발족을가리오라그신뒤전치  
문나사드리를더가날산나모스름을뒤후게이발그은의공주을모공은주이당나나  
을을주이이적공은이가무후발너드름나공사변다른밤그업이다백적나열나나을나  
가이공전공을스름나입상을일개후여제공은로두잇노라주위산나을리여기스부스드러고  
게씨가주뒤뒤후의원지를맛사외근씨을모공의영양공주을공노라공은공여공은  
공공주공부을입의신미즈공씨전공하나히어스은공비공기날산나반영은드름여그형  
제화취정공다공의뒤공씨나리공주모다한발러더공의감나화취을즈공치못  
나뒤주정영양이치공은너의설의다형나고아오우의거공이이당은거발형제  
반의이지사양공의은공신뒤공공초제어티을드라모외정공일화취반공다일합  
설나은나이과조공치안나공을릿가반양정공후의정공의초양저취는진공은  
이설이로되취의비설을사양공여섯오미공물여취는초내의형나러부

은의심잇습니호호의의심과을뜻형호의중세오려사양을호거발터후왕선치로화  
을중호후후신더구공구다양양공구호을나더라뒤후양년의시을상게외인  
뒤생나중관호여할두사전다철문호을고도형양글러구시을년후여뒤을  
후후의의게여모너뜻은나체외의의의한후려나다양나할터후우방이제을처형양스관호  
미이여몇스은나호보후가리한일러호호나다신나도양권할비잇스은나방호은물생  
이여기호취진중호처의권후후야말호제고호고진방의미호후후호을나후여스오나  
본조신스은나전치봉호호양호호의사형호을습다여미호호가리형방호을보제  
시이조호을가후보나라뒤후형양공구을호라본신뒤방양할전시일후어일호호  
의거말습이보습고호여진여도더우더고말호을정본나참관시나라도처호더발가  
을을습스은나스시을을동공호호호라해후진치봉호을본물너호호할아여널호더우  
더형성을동거할호시잇고호호투발러년호양상외의사형호을습스은

거시 너네의 자원을 보필할 지라 이 후는 이 평형을 다 육의 평주는 회을 갑  
게 주라 하시니 진서 감격하여 눈물나흐니 나스스니 국 거발 뒤로 후가 후더 후는 스스  
이 의중을 뒤조호는 뜻스도 조호는 글을 지하시니 너도 이 스스도 글을 지스도 진서 사면  
후고 주사 의 의용려 거발 뒤 후와 상너 보사 신 것거 할 이 도 주사 글을 안 후여 적 형 지 문  
을 갖귀하시니 너 옥살 더 샴 도 다 번 양 공 주 할 회 객 사 의 할 말 업 스 습 은 스 호 여  
양인 너 양의 할 말 을 할 뒤 더 전 절 할 수 업 사 되어 개 되 지 하시도 조 민 닷 두  
조미 주사 글을 안 후여 할 형 일 귀 글을 주사 은 주 현 연 너 무 칩 호 호는 형 업 스 습 은 나 습  
거문자가 전 상을 위 후 여 지 은 뜻 후 너 나 구 뒤 후 할 스 그 호 여 스 조 공 의 글 짓 는 이 가 반 형  
여 락 문 글 나 라 후 너 나 이 체 적 조 이 보 여 스 습 인 글 뒤 잇 스 나 가 위 습 스 도 다 번 양 할 형  
양 형 의 사 비 가 조 호 은 어 스 호는 사 저 가 잇 스 무 물 너 보 사 면 조 호는 뜻 후 너 나 구 잇 서  
별 리 처 물 미 상 너 의 전 으 드 나 가 사 고 두 물 주 보 한 가 지 름 백 의 도 구 간 너 구 잇 트



날기병초역증사터후게조회근초형발초여궁중의드러올셔의부도늘  
년바음을리금차의정키못할듯증은나오날나가부도를회업고반은회을  
말승고고초여의영화를문초아빛고고저중은나복원생은허락후초셔터  
후살여아엇겨정현나결니을셔나려은너가사부부신으로더부더의논할말더  
잇노라증사고증사증피증여정우회부신을부르나나회부신피피을맛사와경  
더너편의드러가입사근뒤뒤후살너가여아을다더<sup>우</sup>번그증도를취증은이앤나  
내안의혼사를위르나나근번그증도를부나사안증나을더번절증야양여승아  
반양의형나되여스나은과인의현형여사과금체의반부인집의관형증여도다성  
양나은의공주되여승주맛당나죽형을즐러나나부신의무증증불성행증여  
그본성을꽃차지앤나증여스나네쓰슬러말더기말나회부신나승은반적증여  
고두차살신형나승게야셔아을어더우고차사관증더나현은나

이 예잇스오니는 적을 어지갓음을 잊가 문무로움을 금치모. 너는 날 뒤 후조판  
할 년양 너 암의 너의 양이 되야 사너 부인은 다사 다려가 되 말나 취서 부부 주유할 신  
침이니 어지갓나 다려가 올 잇가 다 말 모여 혼가 지도나 여편은 을 큰 혼은 되 못. 혼은 너  
이 일고 라 말. 혼은 너 이 다 뒤 후 유어 할. 현 예 편 의 보 권. 너 의 스나. 현 예 후 노 난 양 도도  
혼 부인 여 제 의 각 할 너 지너 난 양 보 사 기 올 너 가 영 양 사 광 합 과 갖 러 후 다. 혼고  
노 양 을 불 너 부 인 을 외 습 고 뒤 후 할 너 드 르 너 부 인 스 라 의 가 혼 은 이 후 혼 난  
사 미 가 러 조 러 러 후 다 후 너 혼은 변 보 겐 후 가. 혼은 사너 부 인 나 죽 시 큰 혼 을 불 너 업  
사 혼 너 드 러 하 되 나 거 날 황 후 할. 혼은 사너 인 이 드 너 드 르 너 네 가 글 시 조 절 모. 후 후  
너 라 인 을 위 능 여 큰 을 지 으 후 혼 은 조 할 신 침 니 잇 제 갓 이 변 을 조 역. 혼은 의 사  
령 후 습 인 여 글 을 되 나 거 날 혼은 사너 노 병 은 고 일 될 휘 전. 혼 여 올 인 나 뒤  
후 후 모 사 고 혼은 처 앞 전 씨 하 상 변. 혼 고 공 주 을 보 라 올 고 전 전 씨. 혼은 가 여 리 여



황후의 여러 차례의 구호는 결국은 부아와 기를 다 놓여 버리는 것은 부인이나

병후에도 마찬가지라 할 만치 한 사람의 몸을 유도로 부러뜨려 주는 조련은 여러 사람의 드

러가나 큰 위가 상할 것은 여러 가지가 될 터인데라 한 처가 될 줄은 모르나 위로는 신의

정행과 같은 토번의 정을 다스려 잡아 잡박마든 후 큰 죄를 짓는 것을 막고 도둑을

드러가 버리는 것을 막고 정을 다스려 잡는 것은 나가지 않을 터인데라 한 위로는 큰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을 막고 정을 다스려 잡는 것은 나가지 않을 터인데라 한 위로는 큰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을 막고 정을 다스려 잡는 것은 나가지 않을 터인데라 한 위로는 큰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을 막고 정을 다스려 잡는 것은 나가지 않을 터인데라 한 위로는 큰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을 막고 정을 다스려 잡는 것은 나가지 않을 터인데라 한 위로는 큰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을 막고 정을 다스려 잡는 것은 나가지 않을 터인데라 한 위로는 큰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을 막고 정을 다스려 잡는 것은 나가지 않을 터인데라 한 위로는 큰 죄를 짓는







승상나승물을 올렸고 드러가서도 무의 회업은 잘 초제후는 국가 위령상  
임어그리즉미이다 사도왕을 사무의상사고 책과 현유라 할 줄여 무의할 리도 오발  
은너정승의 할여업내비회을 두려발나흔더준심비나자도순것후의 발은 승상나 발  
을 곳외고 화원을로도 두간나를은이 제를의너러아러되나거발은승상나 승은  
을보고초제본다사반기머을름은나정정을여는물리비오드스후거발은승은나위  
로왕을승을라<sup>의</sup>의할발나안나은나안승승사은형의발승을자제너드르초제유  
의초제본은더현상천여로인개어인개의승개승엇다가도로상천승은발의형  
다려알나왕상승회조안개의도루승은거사나비저제나형의발은로현승되여만  
은임의도루가제맛승승승그지인과다음이업고로물여현일승승승드르승함의  
을이승<sup>의</sup>의그리를나형승을과드니승개승사비회승여제외뜻승승면승부위의형  
을어거고사형안승개승여나외승은승함의제외승승승이내엇지조승승외한



니 할 리는 저를 부모의 재어 함과 제연의 조상은 주이 단행 의 정실은 업은 여대 그도  
되 정실이니 있지 아니 부그림 지 아니. 주이 조상은 저가 도대 황상니 말 연상 처호  
시기를 가다려 공주의 혼사 술마시의 논 관려 지는 너 드는 니 공주의 위덕이 조그리  
공주의 비할 외를 지라 반마시 온 명은 술수이 주어 조영의 여 색의. 말의 힘의 라라.  
반리라. 이 거별은 상니. 말은 들은 더 옥 관연은 여 색은 조원은 해다 갑지 못 주어 다  
비인. 주어 전 주 문 사 술을 벌고. 논 물은 들은 금지 못 주어 거별은 술이 비. 주 색은 조원  
술은 황상 처의 재 거시 도다. 술상니 현 주. 비 색은 주의 여 지다 시. 비 색은 거 색이 심 사 술을  
가다려 전 더 너 비 술을 여 색은 거 색을 안 보 주 색은 주 색은 황상 처의 다. 큰 말은 업 더야  
주은 술을 비 주다. 큰 말은 업 사. 오나. 주어 비 색은 황상 처의 업. 비나 다. 술은 황상 너 거 색은 비  
술은 주 색은 이 비지 못 주. 여 색은 조원 조원 다. 여 색은 주 기은 비. 나. 큰 술은 드. 더 주의  
술은 비. 나. 술은 상니. 비 색은 나. 술을 비. 못 황. 레. 여 색은 술은 모 기을 비. 본. 다. 시.

동거를 면지국의 도라도승상의 문덕을 회화국의 도라도승상나러우  
스리할나잇가문은을바라니은은물여초계부과문덕의잇나출은을저  
바라와안나러우를라와원조양초을불나하교할집의문은을위하여뒤  
후의조명나나린후로집의아름나피금서지불연은피라드르나승여임의죽  
이하여나하니도우은을가말이여은은을일우고조하여더나경나비죽은여  
을일개나스자년의외라원강후의살더업고경나피금연초의명상의뒤부인  
다잇슈身수피공을바드를스알나업고우한더국더승상부인현이업술슈  
업시며보위국공의가문알현을잇피를를려조승상부의공주공을피어할여  
공기를기다려나어제도피와안전나야승상나고두공을살신나전후거역은외는  
반스무척너우나신나한감두피후은여조승여임의죽어산은나잇자다사다른스  
스두을잇가다반문조의은나승상부아위의의공할가문

나이다 상나 다 알은 듯스 터스 관을 불러 너 덕을 누리시니 추구 원한 일이 화상나 달  
편일의 혼수를 과나 혼치 못후 벗긴이와 잠나 뒤세 양인스물 두어시며 다 현  
숙후 그 손흔후 하범의 **한문** 지라 다른더구 혼을 하도 경 갖든이 업스나 잠나 뒤구  
로 후처을 맞고와 쓰미 양인스물 경의 계를 가할나라 하시며 송상 호연 전구 문  
사를 생각후 신상 중의 고이여 계복의 주발이 제와 함께 처양 광주스듯은 스군  
을 성기고 즈르시니 즈근로 구가 여니 현상은 뜻지 못후 오며 신나어 지감양을  
오릿가생나 가라사더 정의근공나 주히 조형의 제일이 라 생을 비어 양을  
보물후 하도 풍을 겁외 못할라라 잠이 두장 주로 허경을 현기게 하이호호스  
미양인나 후의 귀국후 하 처호 별바을 리 업져 갖되 늘거 주기를 일한후나  
이노후 후제 하아 스스조처을 나려시니 평은 평은 스양 리 별라 호공 하거  
서 번사 주의 딸라라 비방을 즈식과 문관을 거문은 고로 쓰미 양인 후 주

갓치여겨 평생을 돌것으로 언약이 금척갓드나 정의사정이 될거시  
두마리알게를노라 삼치나 저스은호외라잇셔준초제종중의잇쳐 뒤후게  
최형나괴주후녀반양과진심으로더부러돈과갓치형은후나 뒤후더옥스만  
후더다흔이날나양은뒤뒤후후초쳐을나리외형양공중로위국공화부인을  
사무시근반양공주괴뒤후공우부인을사무시근진세로숙부인을불신나  
라조근로공주의흔에비칠나의최형최복은나뒤후특별리별스권나의최  
형에후라후사나노날은상나언로옥뒤로양공주년형에후미위의외모  
최형은이이로공은최복할너최형에후의전숙부인나남편을근공주  
을모사자별좌을주어안고모나최형에관타모나여광치찰보후러라승상  
나눈은드외부나바을나찰을후여복숙언가근더라이날밤의형양공주  
로동침을노날러시미타후게문후후뒤후뒤후사람더연을비찰을근

종을 절기라 하여 밤의 한양공주로 두는 그 잇든 날 밤은 진수부인 밤  
이드리 가니 관사승상을 보고 문득 종헌나는 물을 들으려 할 승상나 부녀  
문왕을 들이 우습은을 전나 체음은 물간은 듯 문물을 들러 면무승여  
노진씨 뒤 왕소침을 괴역지 못하니 노진은 물을 갈라 못하니 나라 승상나  
이승기 상막다가 여대고 반가온 아승의 급외 옥수를 팔고 뒤 노화승진  
씨안나야 최부나 더욱 목이이 여왕을 못하니 승물안을 나지 날 승상왕녀신  
각의 반년 즈을 다시 구천의 반년 가온 여전나 오날 공중의 반년 줄을 나지 드는  
여승의 초화주의 처이 별은 후로 그 뒤 진승 목승은 진실 노발은 승수업도  
다 쳐도 양유사외 비만 부치너 여보나 고 못나 승려를 러 나 나 날 벗 트유공조  
외적고 나 양공주외 전서러 부녀 금실을 풍고 짚장나 비할 더 업더 러 미행  
양공주를 보고 풍조제외 양물 들을 나고 나 여기던 나 노진이 승

드르미더옥 고이거여 일변후초월을생각호여심중의사발여발외생  
의형제드안니고을도외형을나잇치음스늘의소슬루다너준외로디부  
더정호은후로선사을갓치고드디니이제나번도물반화후의부지  
와이아름다운의중씨의외로은은은구현의위로더부더이지를니호  
실죽무념의조상도생신니너가중씨의소슬저발여도다비광호나을을  
이제외못호여눈물의소철적사라영생광후마흔것뒤이제수생의  
죽고그등을보고그을갓트나을의이지사알리지못할나호은생아려나아  
가갓것슬연의고문생형은드른여저의구근형기이신후가임구형기  
기외갓다를은니안구이근심나이스편신호물호은수업다구너아저못거라  
무승회외안번가승생나사제생너가가연호회이소호나공주할어라  
못스은니이외은회생의호편할중스호의생라중호은호고여고코니공

공주와 후로도 다 늙나 여셔 노발 노공주를 모피 거연 비회 들 감치 못하  
나 구영 영공주니 유기도 드는 후구의 발연 변석 들 여주서 구나 안스도 드려  
가 후위나 노와 안거 날 스안나 시녀 드를 여 품공주를 원스 더 공주 시녀 들 사  
되 알 들 상을 막 가니 노시 지 날 나 후 더 스안나 후를 더 리 날 노 여 지 날 거 취 노 라 투  
실스 드진 서 스승 제 나 여 알 할 열 의 스안나 영 영공주를 모피 무승 발 스 드  
로 공주를 퇴 백 들 은 잇 가 공주 그 후 드 스안나 과 은 나 더 알 스 여 노 리 날 찬 사 나  
물 안 줄 노 노 영공주 드 더 부 의 발 스 들 여 알 너 비 주 스 용 열 스 후 구 더 후 구 노 노 의 사 광  
후 노 알 나 호 공씨 비 주 지 격 이 안 줄 나 구 후 찬 이 한 여 스 구 스 안 나 후 노 더 부 더  
언 어 갖 치 주 노 근 공씨 호 화 갑 후 여 다 후 구 제 비 주 아 름 다 노 여 스 나 후 안 실 은 가 나 열  
지 무 후 호 호 스 노 호 호 림 스 호 호 스 호 호 구 구 나 호 호 구 한 열 스 들 호 호 여 지 연 호  
리 호 호 스 나 열 주 쳄 스 드 예 나 갖 호 호 리 호 호 여 스 의 계 비 호 구 이 현 노 나 다





드러가 영생의 나음을 권유 하오리다 그 가라나 별의 빛을 도루나 오지안  
을 거 날은 상어의 심을 러라 이윽근 신여로는 근원 발할 힘이라 만피수유  
되 회심 회산나를 나 힘나 드는 영생은 드 부의 사상을 갖지 할 진위를 노  
순상을 모쳐 영생을 지닐 수 업 것은 나 마라 권리 관속 부 신을 다 리고 동방  
화초구의 잘 피너 오쳐 순상나노 피 등 : 후에 안여 방즈는 을 구히 분이 여기  
러라 권신나와 순상게 고 할 힘 이 비록 이 현을 나 영공주의 적 됨을 입어 온 들  
날근 즈을 모신 비 온나 이 제 두 공주 다 신 전의 화 은 온나 힘 나 엇지 받타 순상  
을 모시 을 뒷가 순상은 힘 러려 방즈 온나 가 바 음 소쳐 순상나야 모 별도 업 러  
후이 별 밤의 자음을 들 유 지 못 : 후에 나 밤을 의 지 는 여 전 리 불구 정 온나 바 음  
이 심이 불을 안을 엇 리나 문득 생각 하여 할 안여즈가 장부의 심을 이 갖든나 너 엇  
피려의 제이 정 온나 비로 오 온나 만 되나 온나 전을 온나 부의 잇을 더 추을 온

로라 부의 술을 가시곤 돌도라 업은 여라 두갈 거시 업련나 도를 거속이 업련나  
이제 부바 된 술이 업의 안나 섬이 이갓뜨다 월 석을 여라 들의 나리가 러트 거속  
으로 스면 술을 아보니 문두공 문한으로 처난 앵과 영 앵나 암화 근노 초 리은  
나 들거 날 령도 드다가 나 영 앵의 침방의 등 조구어 영 농은 여기 날 승상나 고이  
여기 자 최 성시가 밤나 증 박 거터 드는 주공 주 암 화 근노 초 리 들러 거날은 문 두  
으로 엇본나 전 주 남인나 두공 주 술 보쳐 른여 드러 부의 장 괴 술 명후여 보구 술  
들러 여 주 부 술 드나 저 체나 보 주 가 른은 이 두 원너 른은 나 풍 주 의 의 예은  
귀 경 크스 주 여 공 중 의 드러 온 체 여 나 날 나 라 무 음을 감 조고 상 공을 보나 지 안나 주  
보공 드 술 상나 전 해 아저 못 주 나 라 승 상나 심 중 의 놀 배 령 른은 나 무 음 일  
로 공 중 의 엇는 고 반다 서 두 공 주 른은 의 저 질 러 과이 주 술 듯고 보고 스 주 여  
물너 온 듯은 도라 전의 른은 술 가라 최 령은 두 리 드나 관 리 술 두려 너 기 업 길고



우려의는 상 위 국 풍의 부인 이라 후로는 이 비로 죽 짐은 이 불은 이 잇 초제

의 물 들을 손 가 큰 은 은 알 상 연 의 이 큰 별 은 실 조 의 꽃 치 기 어 리 고 어 리 처 잇 과 들 은

쓰름 음 후 천 일 은 을 어 제 일 것 트 여 공 주 부 인 은 너 가 두 령 지 안 이 는 도 라 번 알 공 주 기

영 양 다 어 무 잘 손 상 나 후 은 은 의 수 기 비 리 과 들 나 문 알 나 현 곧 들 의 잇 지 연 과 나

리 은 별 알 나 리 상 후 여 악 귀 을 보 르 호 너 속 은 의 일 은 다 호 식 후 는 스 들 이 식 조 공

나 기 온 별 잇 지 현 별 어 안 나 르 과 쥬 중 이 벽 장 리 호 후 리 후 손 상 이 고 제 후 영 양 나

즈 은 초 제 들 알 은 지 국 의 이 안 스 알 안 남 것 트 여 늘 날 고 반 가 온 마음 나 바 르 창 은 들 열

고 드 리 가 고 즈 음 과 상 각 잘 처 리 들 별 을 후 기 나 도 후 길 이 리 곧 은 가 안 나 나 외 전

씨 방 의 드 리 가 쥬 음 철 의 지 들 여 현 이 라 고 별 리 박 도 후 실 어 나 지 안 나 후 나 관 씨 나 외 신

여 가 리 문 활 손 상 나 잇 지 즈 음 바 리 과 쥬 음 열 알 나 후 여 보 호 신 여 답 잘 아 주 과 쥬 음 열

알 나 후 여 게 시 스 나 빈 양 후 여 이 라 전 씨 문 상 이 나 러 나 가 르 들 기 과 리 손 상 게 처 번 일

아 되든혹은 수상이 기침을 일으키나 혹은 약을 쓰오려 들러 거발견시드리가 문왈 수상이  
후 물평수신이가 수상이 눈을 뜨고 평신업시러이안고거발견시늘더어문왈 수  
상이엇지이갓키러이후시안이가 수상이갓항남고어평신수를종러괴못고은문  
왈너엇리스름니도견시왈 수상은천고물드만이가 평신은진수부인어조소이  
수상을견진수부인은너도진시손을드수상이어버리를만져본고거물평은견진  
수늘어왈일야간의엇지말하니갓은손을며근심고거발견어날밤의중소제  
드러부인문중의말을고듣고어전어엇지괴은이편을러호견시라시고거제할  
을물무르더수상이거잡지안니후손몸을드러누며고듣고거발견시어방정고  
어신어드름고두공주에게고왈수상의병환이심상치안니후유기급러나외보  
조제병안고주왈자날을취호스올무신병이슬고어조유려고은어급다오게  
고어드라호거발견시급러드리고고왈수상이괴은이항남고어스말고

모르고 하던 자도 못나 황생계주 칼을 건 뒤의 줄을 보니 여악은 두레

외르느니 이엇더는 논이 가리 후드르시인 두공주 줄을 보니 칩박을 여악을 너의

가 손상을 후후기 여괴름을 이너 무다 능드라 별의 혼은 만별을 두드근 나가 모지

안이란은 무손일이 드금되나가 모외 별체를 후거 천 뒤의 줄을 보니 악을 사제

후라 후신 뒤 열생 팔주 무두이 난양 팔주 도려 무더는 상진 초르나가 난양과

전씨로 번쳐드러가 모니 승산나 난양을 모근 두손을 열되러 근 두손을 보바로

쓰근 사공을 못나 모며 무안의 후뒤르살너의 번나진느 것드라 영양은 도려 무더생

별을 여시나 영양나 어더잇는 보낸 양살을 승산나 무손 팔손이 못잇가 승산살한

밤의 비물세계 승소 제외 처발나러 발을 여살을 승산나엇리 후여 금석 것튼이 악

을 뒤 발의 나손을 후버디쳐 후손진 주르르의 보로 주기르도 별년 동권 후여 전나 이 제임의

공물 못나 무손을 함은 후근 승산나 손을 엄 누루근 손을 쓰후 후여 나말의 잇스구



나 이치로 할 아나스 람이 드워섯겨 날은 리 랑은 배손을 늘난은 즘씨 비그족

관흔여 법나잇스나 즘를 즘 쥘러 백신나 호위흔의 제어진고히 드의을 잇가스신

활을 즘씨 지근너 져터 잇난뒤 못드러 온말 활의 어리관의 온난양나 활고인나 술로 갈가

은뒤 활을 즘삼과 술모고 뒤삼신가의삼은여 번나 뒤여과 늘러나 상공의 번나그외갓

도다스신나 부잡은고다 배헛은 배늘나 건은 난양나그범체점( 리그경 즘을 모고흔

너속가 지 못흔여 업러나 외쓰지며 활을 상은다 배흔은 즘씨 배삼 갓후사그생 즘씨 배

모고스안나 즘사난 잇가스신나 모고스 즘사면 형이곳은 ( 리르르나 과승삼나그갓

덜리안나 즘의 활이엇과 배손이온 즘사도다 배흔여스면 활너니 임의 죽은제오린

저라 즘은 즘씨 임의너 져터 잇난뒤 잇지다사스 즘씨 잇술이온 즘죽지안나 즘면 활은

살지 못흔면 즘죽년 게스 랑의 잇사다 즘스 랑의 돈을 늘 즘죽어가 즘고 즘죽사다과를

너 죽은게 즘씨 배삼게 즘씨 온공주 의 활을 너 밋지 못흔갓오라 난 양 활을 리러



후남이게 처흔 쇠로 양 여울 삼다 영양 공 주을 뵈듯 하여 형으로 더 부러한가  
지상 공을 보사 제 주미구 영양 처논 곳 전일 금쪽의 논은 더 큰 씨되 드소로 니라 그  
리회안후유면 제잇지흔 씨의 울보갓 들을 깃가 주니 순살나 부잡고 근알는 소려  
형이 잇을 떠 준 초 제시비 후운이 너더 찬니 되여 스나 이 제물러 볼발터 잇스  
오나 후운이 너취잇는 초후보기를 원흔 주나 안할흔 후운이 영양 형을 보  
쳐잇반고 드지금이 고더잇난아라 후운을 갓쳐이오 무흔 여할흔 후운은은은은은  
잇노나 키라 할거 날 양과 찬씨보다 나외난간의 위치는여잇던니 승성이 일  
죽이러나외후는은의 양을 형제 후여 후운으로 후의 후진씨을 형술디  
후운은은은을 더금은 두능쪽와 찬씨와 일너 할승상 형술다 할거 날네사  
관의 할가 지르드러가니 승성이 화양간에 종공포를 입은 빙목여의 현을가  
지은 양형에 비적안스스구그상은 후운갓치호랑흔은 형상은 후의 할갓치영

동한거날 영안이 그러아 조근 조근 알은 북그러 너리 울후 거날 상운 기은  
지금은 어러글 오우가 손상이 증식 티왕글의 문후이 시공이 괴어한 여가  
부의 세고난 글은 초저이 울일 심년 오년 가 배살리 티신에 거늘 여의 경구 정지  
글을 구늘 미나 어저 못글 여 글은 근심은 여 병이 되었다 가 지음은 패이나  
은 나공후의 영에 될 티아나 관글 거날 남양과 각 세우스 티답지 안다 글거  
날 여 영이 될 이이 귀첩은 이 될 티아 오년 티후 세는 글여 티의 울라려  
다가 치로치 아 글의 오스 글이 우후을 참저 못글 여 잘의 부인 글로  
어우려 후생에 만다가 글의 다나 글의 웨이 일나 생 각도 다 연양 왕이  
는 리 후생과 왕승에 잠후 글의 이 울은 또 두공후의 영이 오우  
해울 가 하도 근심 글의 어지 잠후 이가 편후 후의 울겨 저의 글은 티승  
승이 글후의 게신 레월은 후의 은 영의 외상에 다시 영만 비우나 비가 이

은혜를 감응하는 지귀업소유니 금슬 좋은 지략을 두려이 할가유나  
이과음풍을 찬할이신다 제의유조할력이 오첩이 감히 할미신  
너유이 어지침의 재신회할미신이 조후의미이 셤에티 후구경여로날  
여름양승승에 병치을부르서 그가려늘병안주를 열은승승을부  
르시되 두은죽보섯날치라티 후모를할승승이 죽은이로러부러아  
른다유인연이신취가가다시이엇승어지히한치안나를리오승승이  
죽을형은이 감적늘신사나 비죽개을녀여도은회을만부쳐이리  
나잇지갑승오릿가티후를의정을리론늘녀어날어지은리이과  
날리오다항승에너부신리의로후의라승이정양늘시그공을신승의  
게돌이오브의유이초신이다시죽을승승양승승이만피만할귀의이되  
야유저로봉환공한일승어오리나우의어구늘죽용승의경초래는



북을 오릿가 화경 부호 노아가 쳇음을 밟디 하여 불승승에 칠기  
구어 랑도 높다 남을 기어 아난이 작어 승승이 불명 힘겨로 이 못을  
지르실 씨 쳇음에 반경 랑 쳇지 금가지의 승승이 쳇승승이 작음의  
일모음의 보일 흥의 쳇빔에 드렸수 사 쳇이 영화 빔 흥이 나 러는 러  
다 드스승이 두 동 주어 지심과 두 랑 긴 화승 높다 늘은 나 늘리 쳇음을  
용처늘 오릿가 승승 왓 두 동 주다 금인 지의 지 쳇음 보 쳇 쳇이 이 스  
니 엇지 양 남에 북이 앙리 드 흥 월 리 셔로 드라 보 는 흥 찬 글 러 승승  
이 양 남을 라 리 는 길 지 여 반 물 지 보 후 발 힘 흥의 고 할 어 이 른 주 쳇음  
에 승승 외 셔 승승으로 찬 쳇음을 셔 나 벌 나 노 단 구 이 디 승승 거 파 을 승승  
는 노 위 주 흥 안 속 을 는 는 승승 구 비 구 비 쳇을 발 쳇을 승승 승승이  
노 노 게 보 은 디 승승 구 승승을 쳇 는 승승을 어 르 승 쳇을 네 가 의 아 들 승승의

어 미의 못을 것도라 감부 벌 나 거 못을 여 도의 여 고 부를 을 나 러 하

을 상 나 보 회 을 써 나 라 거 모 권 일 라 승 공 을 일 과 취 취 음 라 무 권 은 일 을

날 리 고 은 뒤 부 인 이 살 네 의 부 리 어 미 알 알 승 을 시 기 을 네 문 초 을 크게 만 년 이 라

후 러 라 가 연 그 리 을 도 다 음 너 도 러 여 술 리 는 의 라 승 상 나 현 상 의 소 분 을 은 뒤 연

을 뒤 철 을 후 여 모 부 인 을 사 거 현 유 은 은 권 취 과 구 을 모 의 심 여 일 걸 기 가 라 가

모 부 인 을 도 시 고 걸 을 써 나 는 서 제 도 방 백 라 열 을 유 령 나 응 위 후 여 가 는 거 동 라

차 를 나 을 광 취 일 을 주 의 권 등 후 러 라 낙 양 을 지 니 다 가 흥 의 을 부 르 신 나 라 가 는 뒤

은 을 일 나 알 처 경 을 은 을 나 갖 라 는 거 날 승 상 나 걸 연 은 러 라 흥 원 의 두 광 을 후 여 모

부 인 을 승 상 부 주 공 의 모 시 고 권 문 의 나 가 처 수 비 은 나 양 구 은 여 선 견 은 사 원 노 의

수 고 을 부 르 시 고 금 은 처 관 을 후 수 상 수 리 을 상 사 은 선 뒤 부 인 을 뒤 후 여 뒤 연 을

비 철 을 후 고 반 조 배 관 을 다 이 고 은 일 을 약 은 두 걸 거 늘 나 후 라 승 상 이 뒤 일 을 후 여 뒤 부

인물을 모쳐 상수호는 깡뎌 려이 쳐는사나 일결입범박이 걸너와 갔러라 두공주와  
쳐외박을드디고전후부인과가후운이흐호예을갓초와되오나 예모괴공이조러  
부인의괴을나 화는게는나아유이 화악을러라승상여러부인도신후두환상의  
주신바금은치관을연은여러연을비철은고승일드악은고늘서안조백관과환  
형인인이구름갓치모이안으로안공주그관은고음식이부은호은라만각의늘의  
늘이현고의드문비너와승상나 화복을갓조고안공주조러부러우관의승을술부  
어승레드뒤부인게드러현숙은나우부인이승나갈거를러나이하바즘은조를나  
고승외계형일월척제후은이문의일드러뒤부인라승상화은의일호은을이반이라  
승상나평은여복너의러나공월여제후의철은을여비나거날승상나복너화상의  
은나고개그죄조를시험을라를사나안인이일새의구실신을을할고비관자라예  
거러는승을스물최고이상우의목을가무려나월은과는조근로공을여라

러러지나노라 제비노금슈로 의셔 드러 음까지라 반조빈익이라이라 할나야  
의계침월과글북의적계훈이일즉현종마석인글을드러냈으나라연그적  
조잇섯은나전실노은상나로문유대나시반엇지가리어들리은유부인라행공주  
훈월양연술너양으로불너금은죄안으로상스로서위양반저모너감적은러러  
양연나진셔드러부러야반라옥수를잡고월너편화술을일으며일희일비  
은여형드르거죽어날영행공주드르논은잔술을부어게반의게권은여현거은  
은혜를스케훈거날유부인나우쳐월너의등현월의현거은일안심각은근너  
의종미두어사의은혜을성갓지안나을보야승생나셔갓고즉시언아을보너여  
투연스을현종너비부은너의부형관의일드너여러여관나카오더두연스  
성종의드러반제임의승연이로너가금갓지소식이언노우를거날비부은너도  
라외그스현스을부인게고출너부인라승생나심나절연은러라화설은현월이슨



상부의 드림은 후로도 무는 사람 나날 노닐을 따라 그 거취를 후서 스승은 의결경  
복당 후나 더부인 유세취를 시고 경복당인 화당은 영양공<sup>후</sup>보양공주 처하고  
연화당 등 천응향각과 형화주는 스승의 거취를 의시호로 관권을 바칠후로 빈  
을 잊고 그아림으로 위스당은 스승의 권실이 되고 문조공심흥원은 전서가 거취  
후고연 초가는 가흔은 의방이호로 화형주 동취각과 근주각이 있습미다한 창  
다물보간의 광희형은 스승은 지심월이 거취하고 양월주는 열계공이 거취  
후며 백은 현후이 석호를 예여 문수월연 습후는 서동취부문을 남오외화부서  
백인의 제심월가 주공후고 후부서 백인은 형제후는 다거늘이여 가무스를 팔라지  
고관권호를 위키여 뒤월심오일의 좌우가 악의 화형백의 외외백의 좌조를 빈  
과찰서는 상너더부인이라 양공주를 모쳐 심의 양별을 향후이 이라 보느보승  
관술을 주구너의 예셋가 되셔 그 지조를 빈너고 지노다는 영수일거로

별을 주어 북극을 연계를 나귀의 지조 날의 식히어 과일을 한층의 제 일의  
과일은 은한 공주와 부인들을 모쳐안겨 전나를 생이 벗과로 처일 모쳐을 가려 과나  
생을 주어 열나를 공주 현월 한의 근이 주어 날을 공주 여부의 죽었사 뒤 근일  
의 근을 아연미주근한과 화장 주어 벗다은 화조 화주 현은 제 후는 사공의 아음을  
조랑게 주어 아를 다은 정과 정은 주어 근은 주어 아셔 한번 노과 안나공과 은 원전  
더는 상은 색이 원생의 모와 불근 주어 술과 주며 서울에 무려 뒤 된과 상을 더  
공이 아려 근은 근을 의 근을 아려 주어 근을 가를 근을 근을 주어 근을 근을 아려  
일더 열상 강나 열을 안근을 아나잇가 근을 열 무손 짐근의 근을 아려 근을 아려 근을 근을  
나는 불과 화근 주어 현을 근을 근을 주어 조와 근을 근을 근을 아려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식다 인이 화근 주어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근을

석사정등은이모고출기후여는금하연악을모든다그외조외과석의정정  
정려가인이은금체의웃를필은은주여이과필연월총형나우의공공의미석이  
관발을뜻고은변변고후여엇발행리위석소공부과상고후전일을상고은은  
이이과승상발과연그뒤를도과영양공주왕이거시불고은은이우엇기  
제지리은은월다려할심연공부후여다가서난일조의잇수이변과화기  
이기노우남자의제잇수각별신즉은다공활승명은고후야드은악을공고  
을려우승상나불기악후여보너나인악은불은만은여승상나월을을고려부  
리박후원의불을의악부제가설사여말장을것후여악을가지고와를이  
여승상을모해스미이진조은은나연고어업난지과승상나은복을것조고공시  
을츠고철화철의바을라고승현역수을조발후여나가다가공조의취월을  
만나바라보니월총의은은과여악이조리승상의조기후가라필기은은

행우인 이아라싸온가 무호취 그맛도 화승부 열만치 못하리라 후련  
바라보니 두이인이 옥벽거울라 그속은 행초속으로 편... 갖는이오면니...  
근문출이근거날영을어물너드러나 두방적두담을것고저의나려드러온나  
과반삼도면이로뒤의반문을글의모전등형용여가려두이인이승상양려나가  
비알은거날승상나병국여월행거희인갈려의를죽어...  
승월을다려알려영인을쳐번외를여의아드러나근일의다스...여베풀다려외  
모든여려나려가영을르러부려한가지본단별을듯근구형코즈...여은듯근도  
다왔나다시보니두이인이저식과려도외조월을근과성이잠것월...  
외를총이조근을나려안나근인외월공이인라려그안인을환변모가드면북그린  
을나지안나려나두월왕두방적다려문월승은무에서...의행의잇나조일  
인어뒤월초형의승영은도면이호승은심가로소이다...의뒤월초형은근



고을을 지키지 말고 잘 가라치라 도연이 승병을 고간이라 왕이 또 박라다려 문

왕을 남쪽은 무승적으로 인도하는 나라의 별칭은 초상강가의 잊혀진 그릇은 순이 황영의

노자 권 곳이라 형 동이 초실은 편바라 초취운 무출현량아들이 남고도 현안이 여러

처 부를 그 목 조을 미와 수 귀공은 이 목의 불을 함할가 글나 이가 월왕왕 고인의 글

승영의 미라을 드려 수외 그 목 조을 현후리업다 글터니 이 뒤 남조는 회 그 목 조을 어

러스면 사 속 중 악을 잊지 않 두 할려 호한 번 두기 을 원 그 노라 하는 라 소 명으로 처

이 심은 현 글을 그 크나 한 목 조을 타니 현 원 후 디 여 불을 초래는 승현의 여러 고 고

려기는 상 현의 무로 지고 노 것 갖 타 여 개 죄 중 이 다 처 여 어 낙 누 후 고 일 현 술 들

이 다 들 취며 가 술 초 취 병 든 무 업 사 절 그 여러 죄 분 이 벌이 남지 다 월 왕이 크

게 신 괴 어 여 제 왕 신 간 목 조 가 는 회 현 지 주 화 술 무 인 단 벌 은 잊지 못 글기 또 다 남 조

말 일 신 간 술은 이 면 어 괴 는 회 무 성 입 사 절 노 처 지 노 호 신 간 사 왕 도 니 귀 조 을 비 호

면잇지 논라 그의 려이 논는 와 더 열 힘 이 무 조 의 조 법 배 러 우 아 라 절 후 노 나 무 습  
신 의 논 이 잇 스 을 러 가 배 흥 연 이 왕 과 고 절 힘 이 발 주 리 조 영 스 우 영 일 의 리 온  
동 을 의 려 연 무 을 시 힘 후 의 라 리 나 드 르 조 처 후 인 전 정 을 인 고 잘 의 에 나 와 절 을  
무 노 며 논 리 이 심 오 천 과 상 을 라 더 힘 이 후 의 드 을 인 후 러 라 상 과 흥 월 나 가  
다 를 르 조 주 나 의 절 후 나 더 열 무 러 라 낙 후 원 상 의 연 와 양 인 나 같 점 스 들 동 우 월  
왕 과 상 인 흥 이 드 후 의 조 흥 일 절 이 다 가 날 리 잘 스 러 무 리 잘 의 을 과 후 인 월 식  
을 의 에 도 라 후 나 생 가 여 액 이 절 을 다 드 와 가 이 옥 취 정 이 후 인 흥 과 상 연 후 리 라  
잇 더 잘 안 려 형 드 러 남 여 조 소 성 사 보 다 처 보 며 악 말 보 용 은 후 무 들 후 나 여 잘 현  
조 흥 환 제 가 화 형 군 의 후 르 실 여 그 우 의 가 이 잘 전 나 리 금 여 리 안 나 후 인 사 리 처 가 다 시  
이 갓 트 러 려 과 상 스 로 보 것 다 를 러 후 잇 더 생 공 주 와 전 가 생 안 나 더 무 인 스 들 무 의 인 생  
오 시 기 스 들 기 잘 러 전 나 생 상 나 도 라 와 만 상 의 드 르 며 심 드 연 막 는 라 을 인 드





여의길거온이로흐어과월왕왕대서의발손나비스루로나진살발의안나라즈고  
로부아되여순상과갓치방탕제업논지라이러무르과살불안글노니원권위방  
은조슈을유사의발의여조령을경나살근군법을농벌의여가발문회글을  
조회러루조살부아리잇스나법으로셔다살이변노신과안여의근삼아죽지안나  
로문로스령을싸노라노신여월왕이다시죽왕비죽그려의후스나순상의죄정  
이그죄를유업스온나형권커스런셔추문고여그말을드러회치스니은를가  
로나어회루루죄조글여판공거발월왕나죄목을토글여을의거발순상이권  
글의나이어관을벗근죄을형은디월왕나나화반간어의셔고형두독왕  
문목이슈발글로나순상이듯기을유이여죄을형은디러후드르시  
고디조살회형을받나두이장부의공도나그려유나죽석의과이침공을면  
후고글라글사러월왕나부주왕부아군의회형을받나두면이죽공부

의너무신경이므로하여는 부항을유구 中으로의을어저항을상이공  
 사회하구회후실은우려할양방은진실노국간직지사의라너엇지구가  
 룡안덕침술의조판술은전생에오르려하사구월을양이부족할은유구의  
 능이큰즉회족은유구사구다국법이지어는유구엇지구려두오릿가맛광  
 이종별이비족게는유구초처뒤후오스려락하사구공비익육간을드러  
 디칼양알승상족광이구려것은지라회생은종술의엇지적간장을쓰  
 회오치나발안글글치을갓다구려~~연~~족을갓두부어연회두회반을  
 메가니엇지영이취술리오이어는두족~~살~~전우성이파전술의주어성  
 이회전술다한단나초우의가종이회침을길늘고로<sup>약</sup>보임제법을  
 이갓침입승유현양가에사회되가가진실노국간직지사의이회취술  
 엇승유불너가거을형술이회술이러고것을<sup>다</sup>가양어어머리<sup>가</sup>지술

티어 티어 하니 그 티어 하의 부류 하의 현은 반개 보의 시 그 두 티어  
다려 알 승 상이 후 리 모 글의 되어 저 은 이 불 령 할 거 신 구 너 히 등 은 즉 시  
따 라 가 라 글의 티어 글 승 변 글 은 나 오 티 리 부 인 이 강 상 에 등 록 을 배 물  
그 승 상 을 지 라 리 가 승 상 티 취 글 을 보 는 철 을 비 록 을 배 그 라 글 신 병  
이 잇 되 일 즉 취 글 이 업 러 나 오 글 은 엇 지 이 것 티 리 취 글 엇 보 스 승 상 이  
취 글 노 으 로 글 을 글 을 저 보 너 글 글 글 의 형 철 글 이 티 후 제 그 글  
여 신 글 의 취 글 을 일 러 동 글 글 글 글 글 글 글 글 글 글 글 글 글 글 글 글  
이 보 모 글  
거 이 글  
참 령 글  
새 글

북상부친은 일찍이 죽어셔 남양을 벌하야 소근의 본을 볼게 하였거  
우니 이 벌한 양회본을 치듯 하는 소근을 버지스는 티네 벌노음의  
금벌을 구하야 구로써 주을 티스흔이 불라하스니 승상 잘나디시 소근로  
셔 벌을 치스니 이 구로본인 이 우니 벌을 주심 이 벌을 주을 마시지 양의 구년  
취락의 마음 이 풀이지 안니 승을 지라승고신니로승의 금벌을 주을 난양 의게 보디니 난  
양의 간을 잡아 마시고 승을 지날 승상이로는 연의 승을 예그 잘을 세셔 밋모고 자음니 난양  
이 금회자라 예던지거늘 승상 간을 다 가 맛보니 무너스 합집이라 승상 왕은 허후부 이 독주  
로써 소자를 벌하야 사온티 모친은 엇저 랑슈로 난양을 벌하야 잇가 선녀을 불러와 큰술을  
판을 가져오라 하야 사로가 득부어 복게너 무슈 부디니 다 마시어 승상 사셔 부인게 고환  
고승씨(은은)는 양으로 환가지셔 하야 뒤 후암 폐회 난양의게 눈짓하야 우르니  
그아음을 가리 칭양치 못하야 지라 언컨티 모친은 또 승씨을 벌하야

소위 부인이 뒤소하고 번죽을 짐써게 보더니 짐써지려 온 뒤 한 그마시  
게 날 부인 왈 티 후방이니 소뉴에게 번죽을 너리시기 느히 쳇을 인공  
이요 너 제공주 다 번죽을 여가신기 회 쳇듬더 엇지 안연 할 리요 승상 왈  
월왕너 낙유원 연회의 갈 거옵은 더가 식을 맛 토이 오 더 흥원너 이 소 쳇  
급니 요니 약 쳇 강하여 월왕의 출석 을 이기 느고 월왕너 함강하여 소  
즈로 이 번을 받게 하여서 오너 차스인 을 가 회 번 할 음 소셔 부인 왈 승원  
한 스름 도 번을 주의 요 쳇 각의 말너 가 회 우 습 또 다 하여 즉시 스인의 게  
평원여 각니 알 비 주로 번 할너 스인너 다 바다 마신 후의 흥원너 새러 안 쳐 부  
인 게 주 왈 티 후방이니 승상을 번 할시 문 살 상 회 쳇 을 만너 두는 착이 아  
고 낙유원 연회 지승안너 오 더 연과 양인너 지름 마 지 승상 쳇 칙 을 할 번 도  
밭지 못 할 여 스오너 할가 지 번 죽 을 당 함이 엇지 원 통 치 안너 할 을 이



남서편보신의 조흔이 취안다. 향리의 이슬은 물다 마시니 승상이 불의 되고 화는 모친 계몽설  
아랫외곽의 권승물을 인하여 스식 잘 못카라 친회로 자벌을 신나 소자의 퇴벌이 반한 오릿가  
홍음이의 향명금반자의 주를 일가 두부어 가적오라. 향의 잘을 잠고 왕은 호유도 친의 명  
을 불복지 못함은 명천의 정은 기치 오나 냐다. 이 번 류을 가 나이다. 여대는 가가 회향의 정신인  
슈심지 못함은 고음향가을 가라 친피이러고 자흥거날의 부인의 후한은 이로 향의 정이  
향의 가라 향신의 주본은 안왕의 현현의 같이 비왕. 치 못함 건는 이다. 회향의 정은 안왕의 소침의  
이 향의 정은 비왕의 이다. 향고 향의 정은 안왕의 외사게 <sup>유단</sup> 소침형. 원왕은 춘남이 지하  
향의 정은 비왕의 가라 향고 향의 정은 안왕의 이다. 향고 향의 정은 안왕의 이다. 향고 향의 정은 안왕의  
다 각... 향의 정은 비왕의 이다. 향고 향의 정은 안왕의 이다. 향고 향의 정은 안왕의 이다. 향고 향의 정은 안왕의  
가 안의 모스를 카티은 모으고 그 유의 취식수가 있을 정은 회향의 정은 안왕의 이다. 향고 향의 정은 안왕의  
누라 향의 정은 비왕의 이다. 향고 향의 정은 안왕의 이다. 향고 향의 정은 안왕의 이다. 향고 향의 정은 안왕의

이밖에도 고수주자의 밀·은·동 등의 환적자은과 지어스되 일은 호음은 비이설을 원이라 하고  
심도면을 채운케 한다 제부인과의려 남조화원의늘 서면산등유인이 되어 정덕을  
더라고도 남조심도연다려와 남조의 신흥호변화를 한번 보게하라 할티음과 티와  
이른월협이 권지과을을라고 조화의의을가적사가이제편신을다버쳐발리근환  
수인현등외인감을버쳐발려수나노사카변후여방합이원지후그후우엇과발리  
이제다시날르이조제남조을진실노그리흔도다형을물부인다여섯남조쳐노길  
거주는평이과가가무로을안남고사가가구름을사려나는것과라발은은두문주왕의  
발이스름나남되엇엇이외일국의흔취후미후남의최도되고후취형도되어선나  
이제우의이제을물을구갓고그중일후의국쳐은이요잇수엇지현변이안러이조  
신성리부들과위쳐지부쳐는조국구의활바안나잇안나형제와의을뒤려쳐  
르며조과발저르니을타조근이스트로후남조의제왕을나을안다구지스안국



날은 부인 이리 동후의 알은 옛적의 유관장승인 은근신개이후로 밋츠네 형체의  
수를 헤치오니 현의 노디이체 무리 남조로더 부러 동시 여즈라 위 형위 체 호  
이 무어시 불가 할리 요 체 존지 체와 본가지 체는 존비가 음고 정철과  
음남은 달분지라 체마달너 호가지 디체의 체자 되여 덕을 닦거 극약 체  
로 호가지 가면 존귀 호고 미현 호분 별너 의지 이슬리 요 차후로 보두  
공류와 유상조의 상특 할여 같거 호니 비할디 음더 라 승생의 은정너 되츠  
관살 할거 날이 은 비록 체 부인 승덕 을 입어 가너 화 무 호와 디 귀 인너 남  
악의 이슬씨의 그 발원 호니 이 갓던 인연이라 일은 두 공류의 본왕은 우리 목  
남조로더 부러 공류 관음 화상 모신 암되스 가 분행지 비 할고 즉 무지 여사  
차심 동거 호는 듯스로 즉 위 호 후로 셔로 조 무라 알커 르니 은 정으로 되로  
사랑 호니 중 호더 라 팔 선 여 님 지 조여 을 두어 소미 같거 우니 비 할디 업

그러이세현은라형후고인인이무고외경니부일스루승상이나오면  
현스승을부고안남의산행후고공의들면부인을포고전북명의연남고고  
양판주와고남고드러부러기를가과너머수삼연간의잇공복을누일너승  
상지공을주지니고며체상부귀공명니비할써업려라터귀미지는현도지생  
니스흔진비러보스공의성사부우부인이현연을잇치미승상과제부인파고  
남고의지국의통고이니비할써업려라승스도부려다승수흔고체상을잇치리  
승상의회고이공부인과말음이업려라승상스스르인말흔되부러너승상  
면러명나거라공여신니비상소공여결회흔니상니가러스더정일흔업이코  
고공가의주려져신이라정을보니고부노려부러공가뒤승을의본할이도러  
커리리안니공거발승상니다의상소공여물너가기를간결이간흔더상이승상  
의저력을악거언전고스월다반전의공한나라로가면이안공가러승을의본할지

업술을 행하나라라 물며 이회향 터루 상현은 신조종의

이별을 더오 형법 사십이 외의 이공이 이수이 이는 곧 추이공이라 옛날 현종 황제

의 처를 천궁이라 그 공실유역은 여가 모면 내백을 느편이 거할 만근기오 별노

정을 주어 거처라 후고 죽일 조처를 나외 사승을 위국공은 각과 뒤스라

일본을도 인도현호을 상급은 여농안 수을 다 죽거 두신니 승상이 러유 환은

을 감경은 여고 두치스은 이가 권을 취이공은 도이 사할 서나 공실이 조음 남상급

이 이회향 여공과 정치가 절은 이이 곳 본너 현정 일너 라 옛날 왕후 태상공의

가르려 원거리 될은 능은 조은 이이 국사 취조상 벼공은 이공은 그가 리 절승은 경기를

알너 루승상니 날바다 두권국 화유유방조은 여금가의 인공여 병월을 리 조음은

고산목의 드더가 미화를 조피어은 비이 피너 벼를 올릿은 조형의 안피면 거문고을

라니 별연 형부은 스관바다 물어 안나 할러 업러 라셔는 가름승 추이라



구금이요셔오로바라보니 비몽소실하고 모은서참

구름이흐름으로

마루보니본갓튼장원이현안을돌녀이그화야단누가백공의춤이그월석은번  
남을뒤러옥남간외다시외지할스름업시미곳형중환제뒤진음그머부러한가외길  
거노전화현공이하를두과이제인간다현신영을이하수취르공실삼고영르  
신현을승아장촌과가우죽의현양중녀못승공件라현체를지니고즈름들이  
제어러잇보호호우가하등일후의현공의승려을베살이상장군녀니르고호를방  
즈르러부러두러운외와것튼현니날노러우중중문다현신연이금제까지다  
빛피뭇을외그리공은별년나남녀이연은드외드도외고신연이다.은즉각기러러  
발러이섯. : 해일이라우리가한면도라간후외이집니스스드외각중여연못외  
할거시호호날가우중노과다가문드외장은돌과외본연외안잠잠거사니후일  
이만다시호호동복수가를물론노러. 단석후외향녀. 향녀. 향녀. 향녀. 향녀. 향녀.

손잇날 앵스속 승상이 갈현 여울 다터고 노든 곳사 후러 승상의 무귀와

러 남스외 화승 월터라 너 뒤갓나 고적 사후고 뒤 월 석은 의구 후다 갈 것사나

이 물물 승상 글을 즉 인심 세간 나잇 지 순식 지 편이 안나 오권 현의 세가 지 도가 잇

스유 유 무불 현 세사 라 그후의 의스즉 불도가 높론 지라 유 도는 병을 의 승 권을

고 무귀를 지 정 후후 스후의 일 흥을 나 불 드 제 후고 선 도는 러 관을 여 고 고 든 구

글은 지 심이 안 후 나 앵스네 증라 나 영 남 고 도 <sup>전</sup> 황 관 무 명 현 종이 다 잇 지 못

글 여 반 지 라 너 배 생을 팔 리 세 이 꽃 위 잇스미 근 일 의 미 양 증을 들 미 물 들 흥

의 로 단 과 승 의 증 현 후 여 불 드 들      괴 역 후 구 어 논 반 다 서 불 기 고

러 부 러 인 연 이 잇 보 지 라 너 팔 스 장 자 방 나 처 흥 증을 못 취 노 난 드 승 <sup>수</sup> 고 본

바 다 광 승 바 리 고 남 취 승 건 너 관 음 화 상 을 흥 지 불 생 불 별 지 드 승 구 후

여 지 세 을 별 나 후 고 승 후 노 타 다 반 구 뒤 든 을 노 고

생 로 흥 후 다 가 나

구의 장차 원별을 당할 터니 구절은 그 비결은

발음은 두 제방은 다 남쪽 현역 두 방은 전세인 연나 전능과 승상의 발음을 드

고 제현 발음은 두 여부가 드워 상공 나 번 화공의 드시과 서변 및 제현의 가해러나

소를 현역 관이니 관가지 상공의 및 제 상공 오의 구을 기 달의 들 거시나 상공은

발음은 여 그 스승과 여 전버술이 러 큰 드을 현취능 신 후의 형 등을 가 드

리 조처 승상 나 리 리 로 여 들 을 리 가 임의 승 관 중 여 신 즉 무는 날 을 영여

관할이 온 너 평 열 노 발 형 할 터 라 제 방 서 더 리 열 은 관 설 을 바 드 러 스 상 을

각 별 할 터 라 온 승 장 을 할 지 음 의 난 개 백 과 석 경 시 이 는 겁 된 나 초 뒤 들

리 거 날 제 인 나 가 르 더 이 러 온 승 상 나 이 못 을 오 날 기 이 유 고 노 스 나 오 거 발

바라 본 나 감 이 온 두 는 형 은 영 안 을 평 리 여 범 스 라 다 든 자 타 누 상 의 들

나 승 상 을 더 더 여 알 산 야 지 이 나 승 상 을 외 나 여 영 노 다 는 거 날 승 상 나

비범한 경이름을 알고 이따가 답에 왈사 부는 어디로 조화 오디는 요노승니 소  
왈승상은 천성고의을 모로만 요세 알직 귀한 스승을 잇기을 잘 할지  
라 호전 의 맛고 제 부인 을 도라 보아 왈 서가 토번 칠 뒤의 몸 승의 동  
정 용궁 면 회의 참에 한 후 토라 오느질 의 중간 남학 의 을 사 보나 노  
화상 나 법좌 의 습디 안 처여 리 제 스와 불정 감 손 현 스고 동 보아  
연니 스 부는 몸 중 의 보 습 전 화상 나 안니 온 잇 가 노 승 나 병 중 디 스 왈  
을 되 다 그리 나 다 만 몸 중 의 현 번 본 거 만 심 각 현 고 사 비 연 동 거 현 은  
심 각 지 못 현 유 니 엇 지 양 승 상 나 총 명 할 다 할 리 모크 제 소리 현 의 왈 승  
진 아 인 간 중 나 엇 현 야 승 진 나 고 두 왈 승 진 나 무 상 현 와 즘 심 을 부 정  
이 현 여 즘 각 지 을 이 오니 슈 원 슈 구 리 요 마 당 나 별은 현 체 계 의 처 지  
글 여 유 회 지 양 을 오너 맛 게 현 을 터 오디 스

일만 야 지 몸을



마다 어 승권의 마음을 생갓거 고흘시나 스부

면의정신을

지세여 도엇지 다 감스을 잇가 뒤스 왈네 화

도타오나 너엇지 과스 할리오 노네 말나 인간 유회지스을 남사어 다

나 노글데 성으로 버인 쇠부리 고흘지라네 성나 오히려시지 못할여 노다

예날 광<sup>解</sup>가 성의 호정임이 노며다가 호정의 성나 장쥬가 되여 노야 줄시

무어시 성나 여 무어시 좁인 줄을 분별치 못할나 야 승거 소유가 무어시 성

나 떠 무어시 성안나 바 승권나 고 두쥬 왈 체스 몸뒤 고흘와 성인지 성시지

분별치 못할오나 바라건뒤스 부안 체스을 미갓게 고흘스 처

글시가 변치 못하리라  
가변치 못할지라도  
지못지 않을지라도  
모양은 변치

불변치 않을지라도

불변치 않을지라도

불변치 않을지라도





